Health p/13

수상스키 부상 조심하세요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제300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류현진 10승으로 웃게하라

'주저앉은' 정홍원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임과 관련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알뜰폰 허용… 중소사 강력 반발

"미래부의 이통3사 자회사 50% 제한, 효과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5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제한했다. 이에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미래부는 사실상 KT 자회사인 KTIS, LG유플러스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조건부 허용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30일 이내)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통사 자회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미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에 SK텔링크의 사업 철수를 지시하지 않는 한 KT와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미래부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공통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번 조치는 결국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과점을 부추길 뿐 중소 사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중소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미래부가 이통 자회사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로 잡은 것은 내부에서도 이미 이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련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결국 나머지 50%를 놓고 30여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해야 하는데 이 중 30% 가량은 또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차지한다고 볼때 나머지 20% 시장을 놓고 중소 사업자끼리 피튀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미래부의 조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 지금도 알뜰폰 시장은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 등 대기업 계열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다. SK텔링크는 5월 현재 16.3%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CJ헬로비전 역시 20% 이상의 점유율로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태광 계열의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홈플러스 등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비해 강력한 마케팅을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가 이통사들이 중소 알뜰폰의 단말기 할부채권 유동화를 지원하고 망 도매대가 인하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올 여름, 강제절전 없다

정부는 올 여름철 극심한 전력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 절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790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이 550만kW로 전망된다"며 "전력수급 경보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만~500만kW를 웃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했다. 산업부는 올해 원전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기온 전망이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되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작년처럼 에어컨을 번갈아가며 끄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유주영기자 boa@

국산훈련기 체험하는 미 사령관 미국 7공군사령관인 잔 마크 주아스 중장이 26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훈련기인 T-50 항공기 체험 비행을 하고 있다. /공군 제공

정 총리 유임으로 결론

박대통령, 사표 반려… 청와대 인사수석실 신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낸 사의를 60일 만에 반려하고,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께 국가 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시스템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다. 이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오늘 정 총리의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것은 안대희·문창극 등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이후 인선난에 따른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총리 인선에 발목이 잡혀있다가는 국정 표류가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정 총리는 사의 반려 발표 직후 "앞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과 공직사회 개혁, 부패 척결,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개조에 앞장서서 저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로 불거진 인사 검증 실패를 보완하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윤 수석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둬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재 발굴을 상설화할 것"이라며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고 인사위원회 실무간사를 맡게된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시위 정당한가

기자 수첩

이 재 영
<경제산업부 기자>

"계속되는 시위로 생활을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합니까."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피해만 주장하는게 아닌가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달 17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한 달이 넘게 무기한 노숙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매일 강남역 인근에선 시민의 출퇴근길이 더욱 복잡해졌다. 노조가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통해 민중가요 등을 틀어놔 이곳을 지나는 시민의 귀를 따갑게 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출근길 삼성전자 사옥 앞을 청소하던 한 청소원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서 바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살포한 각종 불법 부착 스티커와 유인물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달이 넘게 진행된 시위로 인해 강남역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과 이곳을 생활터전으로 하는 시민들은 "내가 더 죽겠다"고 말한다. 직장인들은 출근해서도 계속 들리는 소음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말한다. 또 노조 시위로 동원된 수백명의 경찰들까지 통제에 나서면서 이 곳을 상권으로 하고 있는 이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노사 간 교섭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의 이 같은 장기적 시위가 득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아닌 삼성그룹과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만 보일 뿐이다. 26일부터 노사간 협상이 재개됐다. 시민을 볼모로 협상에 나서는 노조의 강경한 자세는 이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뉴스&뉴스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6개월 만에 개최

●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장급 이상 남북 당국자 간 접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종인, 野 워크숍서 '경제민주화 실종' 강연

●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에 초청돼 특별 강연에 나선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가 실종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치의 역할과 관련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 의장도 주례 회동 정례화

● 여야가 정책위원회 의장단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앞으로 매주 오찬을 겸해 정책현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건배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 15곳… 역대 최대

정두언 의원 유지·성완종 상실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6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같은 당 성완종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태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궐 선거 지역구는 14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7·30 재보선은 2002년 8월 재보선 때의 13곳보다 2곳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조현정기자

세월호 국조 특위, 30일부터 기관보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26일 합의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관별 보고 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이 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7월1일, 해양경찰청 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 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10일, 종합 질의는 11일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총기난사 병장 국군병원 이송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GOP 총기 난사범 임모 병장이 26일 오후 국군 강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브리핑 믿어야하나…

'가짜 임병장 해명' '메모 비공개' 등 논란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범인 임모 병장이 1차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전날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계자가 의식을 회복한 임 병장을 상대로 1차 수사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임 병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 병장이 묻는 말에 거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 사고자에 대한 대면조사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발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가짜 임병장 후송' 논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에서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대역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가 강릉아산병원 측에서 강력 부인하자 강릉아산병원과 계약을 맺은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에서 '가상의 환자 운용'을 요청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강원129응급환자이송단도 26일 "우리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임 병장이 이리로 온다며 환자를 후송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희생자 유족이 메모 공개를 강력히 반대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도 희생자 유족들은 "메모 공개를 반대한 적이 없는데 국방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또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집단 따돌림이라는 현상이 군에 존재한다"고 한 발언에 반발, 장례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집단 따돌림을 전제해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내년 상병 월급 15만5천원

국방예산 7.5% 증액 신청

국방부는 38조3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가 요청한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 국방예산 35조756억원보다 7.5% 증액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각각 11.8%, 5.6% 증가했다. 하지만 예년처럼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예산안은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으로 2만200원(15%) 인상이 추진된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800원으로 오른다. /김민준기자

'대통령 퇴진' 글 올린 교사 전원 고발

교육부 "사실관계 확인위해… 위법 있으면 징계"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게시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1~2차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물어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평생학습시대엔 교육전문가가 각광

내 적성을 찾아라! 방송통신대 Q&A ② 교육학과

Q 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는 어떻게 개설 되었나?

A 교육학과는 평생교육의 이념과 열린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방송대학의 설립이념과 그 맥을 같이 해 개설된 학과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형성하고 교육실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평생학습 시대를 이끌어갈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35만원 내외이며,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Q 교육학과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나?

A 교육철학이나 교육심리학 등 전통적 교육학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학습으로 기초를 쌓은 후 평생교육방법론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경영론 등 평생교육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익히게 됩니다.

Q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에는 성인, 노인, 여성교육 등 각 영역에서 평생교육사로서 활동하게 되며, 교육대학원은 물론 사회복지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등 대학원에 진학하여 심도 있는 학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컨설팅이나 심리상담, 진료교육 및 직업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문의 02-3668-4660) /윤다혜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자문회' 스터디 학생들이 한마음대축제에서 응원전을 펼치며 즐거워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 제공

아이폰 위치추적 소송 기각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정보기기 주변의 고유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애플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래로는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원고 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윤다혜기자

성신여대, '나눔, 몸짓, 희망' 행사

성신여대는 최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성신여대와 함께하는 나눔, 몸짓 그리고 희망'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성신여대 체인지 사회봉사단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등이 진행됐다.

이창석 교수, 학회지에 논문

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이창석 교수가 생태분야의 세계적 저널인 '레스터레이션 이콜로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0년 9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국가 생태연구를 책임졌다.

개장 임박 한강 야외수영장 26일 오후 한강 뚝섬 야외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강의 7개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시급 6700원 vs 5210원 '팽팽'

노사, 내년 최저임금 싸고 밤샘 협상… 마감시한 29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700원 안과 5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포함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북창동 개별건축 가능해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는 서울 중구 북창동에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북창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가결했다.

북창동은 2000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뒤 2005년 도심재개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획지(공동개발)로 규제돼 각 획지 내 토지주 간 이견이 있으면 건축물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도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 도계위는 지역(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 획지를 해제하고 밀도 계획 조정으로 원활한 개별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면부 일부 구간의 일반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변경했다.

또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대상지(756㎡)는 준주거지역이자 최고고도지구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이태원로에 접해 있는 곳이다. 3개 획지를 1개 획지로 합쳐 공동개발하도록 했다. 높이 계획은 최고고도지구 고시 기준에 따라 20m 이하로 계획했다. /김민준기자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체험전 '2014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체험전'이 26일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개막해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신념 수혈거부 사망, 의사 책임없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다혜기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급증

연금법 개정 소식 들리자 "삭감될까봐"

올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공무원 연금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금이 줄것을 우려한 교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자(잠정 집계)는 초등 1000여명, 중등 900여명, 사립중등 400여명 등 23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에 비해 6배 가량 많은 2300여 명이 명예 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도 280여 명, 경남에서는 440여 명이 각각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증가하는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명예퇴직 신청 마감 기한은 27일이다.

/윤다혜기자 ydh@

모텔 연계 '풀살롱' 무더기 적발

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시께 마포구 서교동 인근 한 클럽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미리 임대 계약이 체결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3억 6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강서구 소재 한 호텔에서 대규모 클럽을 운영하면서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업소 85건을 단속해 25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민준기자

이자 450% 뜯은 조폭 검거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이를 갚지 못하자 협박한 조폭 두목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6일 폭력조직 '영암 거북이파'의 두목인 김모(48)씨를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면서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넸다. 또 박씨가 약정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박씨와 동업자들을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동업자의 빚과 경비 명목까지 더해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받았다. /김민준기자

구로, 이웃돕기 손길 잇따라

서울시 구로구는 이웃돕기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이바돔이 25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7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광고업체 성림기획이 고척2동 주민센터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강동, '장애인 체육대회'

서울시 강동구는 27일 천호동 코리아 탁구장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1회 강동구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삼아장애인체육동호인, 일반장애인, 비장애인주민, 자원 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한다.

관악,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서울시 관악구는 신림동 순대타운 앞 도림천 둔치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27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도 이용 가능하다. 9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HongKong

甲奇俠現

中科院常州先
進所正研發一款恍
如電影《鐵甲奇俠》
大陸稱《鋼鐵俠》)
能一拳打穿牆，方
救援。

名為「EXOP-1」，
甲俠相似，有一副
與人類身體十分相
是航空鋁，十分輕
斤。穿上後就像操
戰甲」，能協助負重

人陳劍表示，他的
改良這件戰衣，希

▲「機械戰甲」概念來自電影。

望將來一個普通高矮的男子可
孭起100公斤重量的東西。可
使用於火場救人等用途。

metro France

Le bitcoin s'offre une vitrine à Paris

Numérique

Restaurants, bars, boutiques, ils sont une petite vingtaine à accepter le paiement en bitcoins dans la capitale. Depuis plusieurs mois, leur nombre croît doucement mais force est de constater que la monnaie virtuelle, accusée de nombreux maux, est encore quelque chose de nébuleux. Créée en 2009 par Satoshi Nakamoto, elle permet de régler des achats en ligne sans passer par des intermédiaires (les banques) ni par une autorité centrale (les banques centrales). Pour le faire savoir, deux entrepreneurs, Eric Larchevêque et Thomas France, qui comparent le bitcoin à une « révolution industrielle majeure », ont ouvert le 13 mai dernier la Maison du bitcoin, rue du Caire, dans le IIe arrondissement de Paris. Avec un mot d'ordre : faire de la pédagogie. « Une innovation, comme le fut l'électricité ou Internet, a toujours besoin d'être expliquée », assure Thomas. Public visé : M. et Mme Tout-le-monde, tout autant que les grands groupes intéressés par le

'비트코인 거래소' 파리서 인기몰이

프랑스 파리에 이색 비트코인 거래소가 주목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파리 2구에 거래소를 오픈한 두 청년 에릭 라르슈베크와 토마 프랑스는 '전기, 인터넷과 같은 혁신은 항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색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곳엔 프랑스 최초로 비트코인을 유로와 교환해주는 판매기가 설치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소식을 접한 방문객들로 거래소는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 매장 한켠엔 비트코인을 활용해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metro Russia

Завод в зону

버려진 공장이 가족 공원으로

최근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근교의 군수 공장이 가족형 공원으로 변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원 홍보 담당 아나스타샤 가마유노바는 "공장을 가족 중심 휴식처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이 공원은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마유노바는 "모스크바 예술가 세르게이 카트란의 작품,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83m 길이의 거대 벽, 다양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는 동물체험 공간이 공원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아이언맨 '로봇 슈트' 성큼

중국과학원 외골격로봇 개발 성공… 사람 하반신과 비슷한 형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로봇 슈트'가 현실화할 날이 머지 않았다. 얼마 전 월드컵 개막식에는 하반신 마비 환자가 외골격로봇을 장착하고 시축을 해 화제가 됐다. 최근 중국과학원 창저우 선진제조기술연구소는 높은 기술 수준의 외골격로봇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3월 로봇 프로젝트 담당 연구원 천젠(陳劍)과 동료들은 EXOP-1이라는 이름의 외골격로봇 제작에 돌입했다. 다리와 발을 가진 이 로봇은 사람의 하반신과 비슷한 형태로 항공알루미늄으로 제작됐다. 22개의 센서가 있고 구동부가 6개, 제어부가 1개 있다. 무게는 20kg이다. 허리와 다리에 각각 9개있는 고정밴드를 이용해 이 로봇을 고정시키도록 돼 있다.

양 다리에 세 개씩 있는 모터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역할을 한다. 로봇을 다리에 장착하고 움직이면 로봇은 빠르게 동작을 감지, 같은 각도로 다리를 뻗어 발걸음을 내딛는다.

외골격로봇은 대부분 하중을 견디는 군용과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용으로 나뉜다. 산업용 로봇은 대개 등산, 수영, 소방, 재해 등 무거운 물자나 장비를 옮겨야 하나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된다. 이번에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은 하중형 로봇이다.

천젠은 "하중형 로봇을 다리에 걸치면 물건을 들 때 '로봇 다리'가 힘을 보탠다. 이 덕분에 사람의 힘으로 들기 힘든 물건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EXOP-1은 7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골격로봇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소방서 등 기관은 즉각 구매 의사를 밝혔다. 로봇을 사용, 화재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무거운 자재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골격로봇의 제조 비용은 30만 위안 정도(약 5000만 원)다.

현재 연구팀은 시스템과 효율을 크게 높인 2세대 외골격로봇도 연구 중이다. 천젠은 "높은 빌딩에서 불이나면 이 로봇으로 아이언맨처럼 불을 끄고 재난지역에서 벽을 뚫고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Brazil

Comércio apost no jogo do Bras

술집 '웃고' 호텔 '울고' 월드컵 특수 업종 희비

리우데자네이루에 이어 방문 관광객 수에서 2위를 한 브라질리아의 상인들은 월드컵 대목에 희망을 걸었다.

브라질 국기와 유니폼 등을 판매하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파울루 페르난두(34세)는 월드컵 시즌이 다가와 매출이 70%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북새통을 이루는 기념품점과는 다르게 호텔과 레스토랑의 주인들은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평소 보다 더 적은 수의 손님이 가게를 방문하기 때문.

브라질리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의 회장 클라이통 마샤두는 "어떤 레스토랑에는 평소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손님들만이 방문한다"며 "월드컵은 매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도 사람들은 바로 술을 마시러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TV와 프로젝터를 구입해 월드컵 특수를 노린 술집은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 마샤두 회장은 "술집은 월드컵기간 평균 30%의 매출 신장을 했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아인이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 공원을 점령하고 있다.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브라질을 찾은 파블로 바를라는 "아르헨티나보다 이 곳이 더 좋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뜨거운 물도 잘 나오니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야영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안 카를로스 카탈로는 "브라질이 좋다. 불평할만한 점이 전혀 없다"고 호평했다. 그는 트럭에 친구 6명을 태우고 월드컵을 즐기려 브라질에 왔다고 했다.

/하파에우 벨레다 기자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995.05 (+13.28)

코스닥 530.04 (+2.78)

금리(국고채 3년) 2.71 (+0.02)

환율(원·달러) 1015.70 (-4.30)

뉴스&뉴스

카프리, 예술과 만나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쓰리매너티에서 열린 카프리 아트 콜라보레이션 전시회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 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u-보금자리론 금리는 6월 현재 연 4.05~4.30%에서 연 3.80~4.05%로 낮아진다.

또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5%의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가 취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현행과 같이 소득 수준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8~3.6%가 유지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

중소·중견기업 3천억 대출

●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에 성공한 중소·중견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총 3000억원을 빌려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R&D 전담기관은 산업부 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무역보험공사에 추천한다. /유주영기자 boa@

내년 부처 요구 예산 377조원

내수 부양·사회안전 투자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등은 줄어

정부가 201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와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확대한다. 또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예산 지출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점차적으로 삭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15년 정부 부처의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조2000억원 늘었지만, 증가율면에서 2010년 이후 5년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요구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6%,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였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안전 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된다.

분야별로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요구됐다. SOC와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청됐다.

▲ 2015년 분야별 요구 현황

(단위:조원)

구분	'14예산 (A)	'15요구 (B)	증감 (B-A)	%
1. 보건·복지·고용	106.4	118.0	11.5	10.8
2. 교육	50.7	56.1	5.4	10.7
3. 문화·체육·관광	5.4	5.8	0.3	6.2
4. 환경	6.5	6.3	△0.2	△2.5
5. R&D	17.7	18.8	1.1	6.1
6. SOC	23.7	21.9	△1.8	△7.5
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5.1	△0.3	△1.7
8. 농림·수산·식품	18.7	18.3	△0.4	△2.1
9. 국방	35.7	38.4	2.7	7.5
10. 외교·통일	4.2	4.4	0.2	5.1
11. 공공질서 및 안전	15.8	16.8	1.0	6.3
12. 일반·지방행정	57.2	58.9	1.7	2.9
◆ 총 지 출	355.8	377.0	21.2	6.0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이는 기초연금 지원액 7조7000억원, 4대 연금 지출액 40조30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교육분야 예산 요구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요구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10.7% 늘어난 56조1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요구액은 6.3% 상향된 1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선 도로안전·도로구조물개선 요구액이 올해 3137억원에서 4508억원으로, 농업재해보험은 27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산업업종별 재해예방은 432억원에서 606억원으로 증액 요청됐다.

반면 환경(-2.5%), 사회간접자본(SOC)(-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1.7%), 농림·수산·식품(-2.1%)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해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됐다"며 "신규사업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9월23일 국회 제출 시까지 3개월 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처·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초록여행 하모니 원정대 출정식 26일 오전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2기 초록여행 하모니 원정대'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모자를 던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여행 사고시 보험사 배상책임

해외 패키지여행 도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고객이 해외리조트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보험사가 배상책임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결정했다.

A씨는 B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던 중 자유 시간에 C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다쳐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선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보험사가 A씨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해외직구때 쓰는 '페이팔' 보안결함 충격

2단계 인증 건너뛰는 방법 드러나

PayPal

페이팔 결제 시스템에서 보안 결함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페이팔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1억명 이상이 쓰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로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직접구매)' 등에 사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 이 같이 보도하고 미국 미시간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업체 듀오시큐리티의 연구원들이 페이팔의 이른바 '2단계 인증' 절차를 건너뛰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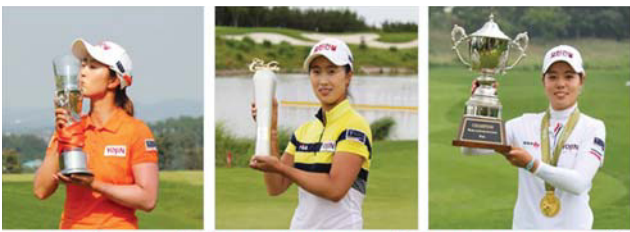
페이팔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자사 결제시스템에 접속하는 고객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위한 암호를 보내 이를 입력해야만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 뱅킹이나 e-메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이중 인증 시스템에서 결함이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FT는 지적했다.

페이팔은 그동안 최고 수준인 자사 보안시스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모회사인 이베이는 지난 5월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도난당하는 피해를 봤다. 당시 페이팔은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페이팔은 앞으로 수 주간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예방 차원에서 고객들이 모바일 앱 계정 로그인을 위해 이중인증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박성훈기자 zen@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tvN
tvN 금토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남 일인 듯 남 일 아닌
밀당 전문 로맨스
한그루 | 연우진 | 정진운 | 한선화 | 허정민 | 윤소희
7/4 [금] 저녁 8시 40분 첫 방송

요진건설산업 여자 골프단 작년 우승자들. /요진건설산업 제공

건설사 스포츠에 꽂히다

기업 홍보·비인기 종목 지원 사회공헌 목적

올 들어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스포츠구단을 후원하는 건설사까지 화제다.

건설사들이 업종과 무관한 스포츠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 홍보가 가장 크지만 비인기 종목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전개에도 목적이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2010년 여자 프로골프단을 창단했다. 선수들의 실력에 요진건설산업의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져 창단 1년 만에 '2011년 롯데마트 여자오픈'과 '2011 ADT캡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호반건설도 2009년 '호반건설 골프단'을 만들었다. 4명의 여자 프로선수들로 시작해 현재는 국내 최정상급 남녀 프로선수 5명이 소속돼 있다. 선수들이 잇따라 좋은 성적을 내면서 프로 골프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1977년부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여자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0~2011 시즌에는 프로여자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다. 배구단에 투자하는 비용은 연 30억~40억원 수준이지만 창출되는 광고 효과는 100억원으로 평가된다.

두산중공업 양궁선수단은 1994년 창단해 올해로 20년을 맞은 전통의 강호다. 각종 국내 대회에서는 물론, 2011년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200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단체전 2관왕을 배출했다.

포스코건설은 대표적인 비인기 종목인 체조와 럭비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5년 대한체조협회 후원사를 맡은 이후 2004년에 아예 체조단을 창단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코스닥 자사주 매입 "글쎄…"

고배당 매력 끌리지만 종목선택 신중해야

코스닥 상장사들이 대거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를 띄우는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황 자체가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경우,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도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사주 매입으로 고배당 매력이 두드러지는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자부품 전문기업인 이노칩테크놀로지는 지난 9일 11억5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만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번 이상 자사주를 사들인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다섯 번째다.

이노칩의 수년 간에 걸친 자사주 매입 노력은 주가 상승으로 빛을 발했다.

지난 2010년 3000~4000원대에서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지난해 6월 1만8000원대를 찍고서 최근 1만2000원선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매입 효과가 더 이상 발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관련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한 측면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노칩이 최근 22%에 달하는 자사주를 사들였는데도 주가가 더 오르지 못하고 있다"며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의 추가 성장세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업종 전반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자사주 매입 등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부품 납품업체인 휴대폰 카메라모듈 전문기업 나노스 역시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 주가가 지난해 반짝 상승한 뒤 원점으로 주저앉았다.

나노스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에 걸쳐 14억2240만원 규모의 자사주 10만주를 취득했으나 주가는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 8000원대까지 밀렸다.

지난 2012년 7000원선에서 지난해 유상증자를 앞두고 2만1000원대까지 껑충 뛰었다가 무상증자 전후로 주가에 힘이 빠져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후 자사주 매입 등의 조치를 했지만 주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은 주가 안정이나 경영권 방어 차원이 있다"며 "다만 단순히 사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주 매입으로 배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자료 살피는 구직자 26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 벤처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업체 정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전세 2억2천만원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3% 넘게 올라 평균 전세 값이 2억2000만원대를 첫 돌파했다.

반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이 지방의 절반 수준에 그쳐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구, 충북, 경북으로 나타났다.

26일 KB국민은행이 부동산정보사이트(http://nland.kbstar.com)를 통해 발표한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3.09%)은 인천제외 5개 광역시(1.70%) 및 기타 지방(1.88%)을 능가했다.

이는 1년전(2.14%) 상승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2049만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2억2000만원대로 올라섰다.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비율)은 65.6%, 5개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는 72.7%, 기타지방은 72.2%로 나타났다.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올라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상반기를 기준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2011년(0.82%)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지난해 아파트매매가격은 -1.28%, -1.40%였다.

지역별로는 인천(1.07%), 경기(0.76%), 서울(0.34%) 순이다.

반면에 지방은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인천을 제외한 지방 5개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 상반기 1.64%나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폭(0.97%)을 크게 웃돌았다.

광역시 가운데는 대구(4.00%), 광주(1.51%), 울산(1.44%) 등이 강세를 보였다. 2011~2012년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부산(0.50%)과 대전(0.25%)은 오름세가 주춤했다.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방도 1.30% 올랐다.

/김두탁기자 kimdt@

상장사, 세무·컨설팅료 美의 5배

"외부감사 의존도 낮추고 보수도 70% 줄여야"

국내 외부감사인이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이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의존도를 높이고 감사품질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총 47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장회사 1726곳 대비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상장사는 지난해 감사 보수로 862억원, 비감사 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함에 따라 약 48%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을 기록했다.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지난 2011년 48.7%에서 2012년 68.7%로 급등했다가 2013년 48.4%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최근 3년 평균은 54.9%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에는 일부 대형사의 인수·합병(M&A),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한 거액의 비감사용역보수가 일시 지출됐다"며 "한 보험사의 경우 다른 회사 인수와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 인수 등에 대한 자문용역으로만 25억원을 썼다"고 설명했다.

같은 상장사라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했을 때와 미국에 상장했을 때의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신한금융지주·포스코·우리금융지주·SK텔레콤·KB금융지주·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 6곳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11%로 국내 상장사(54.9%)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 상장 국내 기업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지난 2011년 8%에서 2012년 17.6%로 뛰었다가 지난해 11.1%로 소폭 내렸다. /김현정기자

삼성전자, '기어 라이브' 선봬

안드로이드 웨어 탑재… 블랙·와인레드 색상 출시

삼성전자가 '타이젠'에 이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기어' 제품을 선보이며 웨어러블 시장 입지 강화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구글 I/O)에서 구글 웨어러블 기기 전용 OS인 안드로이드 웨어를 탑재한 '기어 라이브(Gear Live)'를 공개했다.

'기어라이브'는 1.63인치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심박센서, IP67 수준의 생활 방수·방진 기능 등 삼성전자만의 최신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기어 라이브'를 통해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으며, 심박센서를 활용해 심박 정보를 바로 확인, 관리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어 라이브에 구글 나우, 구글 보이스 등 구글의 모바일 서비스를 최적화했으며, 쉽고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한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뉴스나 쇼핑 정보 등 특화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케이 구글'이라는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기기를 활성화해 알람 설정, 일정 업데이트 등도 할 수 있다.

기어 라이브는 블랙과 와인레드 등 두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안드로이드 4.3(젤리빈) 이상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며, 2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예약 판매되고, 향후 삼성전자 매장에서도 판매될 계획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장 대표는 "기어 라이브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고 직관적인 웨어러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도 오랜 파트너인 구글과 협력해 소비자들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니콘, 초고화질 D810 출시 니콘이미징코리아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X포맷 3635만 화소 DSLR 카메라 'D810'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노션, 대학생과 함께하는 '착한 광고' 동행

이노션 월드와이드(대표 안건희)가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이노션 멘토링 코스(IMC)' 시즌4에 참여할 대학생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IMC는 이노션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광고재능기부다. 차세대 광고인을 꿈꾸는 대학생을 선발해 이노션의 광고 전문가가 멘토가 돼 광고 제작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하고, 장학금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전공을 불문하고, 광고에 대한 열정과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대학 2~3학년생이다. 지난해까지 지방에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데 이어, 올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지원대상을 넓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이노션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innocean)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2013년 이노션 멘토링 코스(IMC) 시즌3 참가자와 멘토들의 모습. /이노션 제공

1차 서류 심사 이후 2차 면접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32명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팀당 4명씩 8팀으로 나눠 7월8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노션의 광고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에게 실전 업무지도를 받는다. 또 광고 이론과 실무에 대한 특강에 참여하며 과제 미션인 사회적 기업의 광고 캠페인을 제작한다.

수료자 전원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우수아이디어를 제안한 2팀(총 8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추가 장학금과 자신이 제작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태균기자 ksgit@

여름철 필수아이템, 똑똑 사용법

짠순이 주부 경제학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되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선풍기, 에어컨, 돗자리 등 여름 용품들을 꺼내 미리미리 손질해야 한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세균 증식이 빨라서 퀴퀴한 냄새가 금세 집 안에 퍼진다. 쉬우면서도 간단한 여름철 청소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여름철 대표 가전인 '에어컨'과 '선풍기' 청소부터 시작하자. 매일같이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적어도 열흘에 한 번은 필터 청소를 해줘야 한다. 곰팡이 냄새를 잡기 위해선 필수다. 필터에 곰팡이 제거제를 충분히 뿌리고, 30분 후에 물로 깨끗이 닦아낸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두면 20일 이상은 곰팡이 냄새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다.

선풍기 청소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선풍기 먼지는 선풍기 바람을 쐬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때문에 선풍기 날개를 자주 청소해야 한다. 나사를 풀어 선풍기 날개 부분을 미지근한 물에 담그고, 수세미로 먼지를 닦은 다음 마른걸레로 물기를 닦는다. 마지막으로 정전기 방지용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리면 날개에 먼지가 앉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돗자리의 경우 얼룩이나 때가 많이 타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먼지를 털고 깨끗한 걸레로 닦아 그늘에 말리면 된다. 얼룩이 졌거나 더러울 때에는 우선 빗자루나 스타킹등으로 먼지를 털어낸뒤 미지근한 물에 합성세제를 푼 물로 닦아준다. 이때 될 수 있으면 거실에 펼쳐놓고 세제의 거품만을 이용해 헝겊으로 고루 문질러 주는 것이 좋다. 다음 깨끗한 헝겊에 식초를 묻혀 거품이 묻은 부분을 닦아 세제성분을 중화시킨뒤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말린다. 대나무나 망사 등으로 만든 발은 세제를 흠뻑 묻힌 스펀지로 여러번 닦은 다음, 물에 헹궈 그늘에서 펼쳐 놓은채 말린다.

무더운 여름철엔 잦은 샤워와 세안으로 욕실 바닥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그래서 타일 사이 줄눈에 물때가 잘 낀다. 외관상 보기에 좋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를 풍겨 코를 찡그리게 한다. 물때는 오래 두면 하얀 줄눈이 누렇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자주 솔로 문질러 제거해야 한다. 물때가 끼는 것을 방지하려면 욕실 바닥에 초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충망 청소도 요령이 있다. 방충망 뒤쪽에 신문지를 넓게 붙이고, 청소를 하면 끝! 신문지를 테이프로 방충망 뒤편에 붙이고, 청소기 주둥이를 솔로 바꿔 살살 문지르면 먼지가 떨어진다. 방충망이 비에 젖지 않고, 바짝 말라 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구글·애플 "우리 것만 쓰세요"

모바일 온라인 클라우드 연동 강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제품간의 연동을 강조하고 있다.

쉽게 말해 '우리 제품을 쓰면 원스톱으로 해결되니 경쟁기업 서비스에는 관심갖지 말라'는 것이다.

구글은 26일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크롬 OS 기반 노트북 '크롬북',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드라이브'의 상호 연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달 초 애플이 데스크톱용 맥 OS X, 모바일용 iOS,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 강화를 밝혔던 것과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다.

이날 구글은 크롬북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이의 연동 기능을 선보였다.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 오거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거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아 가면 크롬북 화면에 이를 알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또 안드로이드 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뿐 아니라 크롬북에서도 구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에버노트, 바인, 플립보드 등 앱을 이용해 이를 시연했다.

안드로이드와 크롬북에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한 연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데스크톱, 클라우드를 함께 묶는 통합 사용자 환경 구축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이런 연동 기능을 소비자들이 언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안드로이드 L'이라는 가칭으로 알려진 차기 안드로이드 버전이 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은 지난해 가을에 나온 '4.4 킷캣'이다.

/박성훈기자 zen@

<연구개발>

"만도 매출액 5% 이상 R&D 투자한다"

中 베이징 연구소 신축…글로벌 매출 목표 9조

한라그룹 계열 자동차부품업체 만도가 향후 투자 규모를 매출액의 5% 이상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은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만도 중국 R&D센터(MRC) 준공식에 참석해 "만도의 2012~2013년 R&D 투자액은 매출액 대비 4%대였으나 올해는 4.6%로 확대하고 앞으로 5%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만도의 주요 고객사인 국내 완성차업계에서도 R&D 투자액이 매출액의 5%를 넘긴 사례는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매출액의 2.1%와 2.6%를 R&D에 투자했다. 한국GM은 3.6%, 르노삼성차 4.2%, 쌍용차 4.4% 등이다.

만도는 MRC 준공을 계기로 중국 고객들에게 생산·R&D·영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 해결책'을 제공해 현재 110억 위안(약 1조7999억원) 상당인 연간 매출액을 2018년까지 2배인 220억 위안(약 3조5999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만도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5조6356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늘었고, 영업이익은 3126억원으로 22.1% 증가했다. 중국 매출 비중은 약 32%에 달한다.

올해 글로벌 매출 목표는 9조원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이어 "만도가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생산 현지화뿐 아니라 R&D를 (지역에 맞춰) 특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도는 글로벌 특화 전략의 일환으로 2003년 설립한 베이징연구소를 확장·이전해 연면적 1만㎡의 지상 5층 건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는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2000만대에 달하는 중국에서 현지 완성차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만도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R&D센터를 준공하고,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연합뉴스

설립 당시 14명이었던 연구 인력은 현재 255명으로 늘어났다. 중국인이 239명으로 90% 이상을 차지한다. 최대 350명이 근무할 수 있어 2018년까지 나머지 인력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인근 베이징공장 근처에 조성한 만도타운에는 10여개 현지 협력업체 공장들이 한데 모여있다. 만도 베이징공장 800여 명을 비롯해 총 11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정 회장은 "올해는 만도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는 해"라면서 "5월 폴란드 공장 준공에 이어 6월 베이징연구소와 선양공장을 준공했고, 7월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준공해 급속한 자동차 전자화에 대응하고 고객을 다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 회장과 신사현 만도 부회장, 김태윤 베이징현대차 총경리,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신축 베이징연구소는 제동·조향·현가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17만8000㎡ 규모의 주행시험장을 활용해 비포장도로와 먼지가 많은 중국의 환경과 시장 요구에 맞는 특성화 제품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만도는 베이징·쑤저우·톈진·선양·닝보·하얼빈 등 6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중국에 진출한 현대·기아차뿐 아니라 상하이기차, 창안기차, 지리기차, 제일기차, 광저우기차 등 다수의 현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현대·기아차가 70%, 현지 업체들이 30%를 차지하지만 앞으로 현지 매출 비중을 더욱 키울 계획이다.

중국 외 R&D 네트워크로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만도 글로벌 R&D센터'와 미국(디트로이트), 유럽(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뉴델리·첸나이) 연구소가 있다.

/김두탁기자 kimdt@metroseoul.co.kr

분양단신

미니신도시급 '인천SK스카이뷰' 분양

SK건설은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 2-1블록에서 미니신도시급의 '인천SK스카이뷰'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40층, 26개동, 전체 3971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127㎡로 구성됐다.

인근 경인고속도와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권 및 경기 부천·안양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사업지 바로 앞으로 수인선 용현역이 2015년 말 개통 예정이다. 강남을 직통으로 잇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가깝다.

단지 남측으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신설 부지가 마련됐으며, 용현남초, 용현여중 인항고, 인하사대부고, 인하대학교와 인접해 있다.

아파트 조경면적만 약 8만9000㎡, 주변으로 용정근린공원, 제2용정근린공원, 완충녹지와 어린이공원 등 서울 여의도공원과 맞먹는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인천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시설에는 25m 레인 3개가 설치된 수영장, 전 타석에 스크린이 있는 실내골프 연습장, 피트니스센터, 키즈카페, 독서실, 티하우스, 워터파크 등이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주말 예약 방문 시 홈플러스 1만원 상품권과 아구 경기 관람권을 지급 한다. 문의: 032-889-2535

/박선옥기자 pso9820@

파주 30억대 상가

추천 매물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일대 파주LCD산업단지 중심상권에 추천할 만한 매물이 30억원에 나왔다.

건물연면적 1166.28㎡ 규모의 5층 건물로 ▲1층 일반음식점 ▲2층 다중시설(씨네마월드) ▲3~5층 원룸 33실이 입점해 있다. 이 가운데 원룸은 풀옵션으로 구성돼 공실이 없는 상태다.

건물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1층 2000만원에 200만원, 2층 5000만원에 450만원, 3~5층 10억8900만원에 300만원 등 총 11억5900만원에 950만원에 형성돼 있다.

대출금 10억6000만원과 보증금을 제외한 7억8100만원으로 실투자가 가능하며, 연간 8%대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2011년 말 준공된 새 건물이다.

문의: 010-7415-0712

여름휴가 페스티벌, 돼지농장 체험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4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에서 학생들이 돼지 농장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에버랜드 → '제일모직' 으로

내달 4일 주총서 확정…"정통성 잇는다"

삼성에버랜드가 사명을 '제일모직 주식회사(영문명:Cheil Industries Inc.)'로 변경한다.

삼성에버랜드는 다음달 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같은 사명변경안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명변경은 삼성에버랜드가 지난해 사업재편 이후 추진해온 것으로, 삼성의 모태적 성격인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의 철학과 정통성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제일모직'을 새 회사의 이름으로 결정했다. 단 해외법인의 경우 삼성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 지역명 앞에 삼성제일(Samsung Cheil)을 붙이는 형태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명변경과 관계없이 기존 테마파크 브랜드인 '에버랜드'는 리조트 사업의 브랜드로 변함없이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1963년 동화부동산으로 출발해 중앙개발(1967년), 삼성에버랜드(1997년)로 사명이 변경됐다. 지난해 9월 제일모직 패션부문을 인수한 뒤 이번에 제일모직으로 사명변경을 확정하게 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패션부문의 경우 글로벌 톱 브랜드로의 도약을 지속 추진한다. 건설 부문은 조경, 에너지 등 전문사업역량을 확대해 글로벌 건설사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리조트 부문은 용인단지의 지속적 개발을 추진해 호텔, 수목원, 복합상업시설 등 신규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에버랜드는 다음달 4일 신 사명 선포식과 함께 회사의 새로운 비전인 '당신의 삶에 행복과 품격을 더하는 제일모직'도 발표한다.

회사 관계자는 "신 비전은 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고객의 더욱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보다 선도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윤주화 패션부문 사장, 김봉영 리조트·건설부문 사장을 비롯, 임직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광대역 LTE-A가 도대체 뭐야"

빠른 ICT 기술발전에 소비자 '혼란'…알고쓰면 '藥'

직장인 이경민(27)씨는 '광대역 LTE-A'를 외치는 통신사 광고를 볼 때마다 어리둥절하다. 지난해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되자 마자 단말기를 교체한 이씨는 약정이 아직 1년이나 남았다. 이씨는 "1년만에 광대역 LTE-A가 나오니 혼란스럽다"면서 "광대역 LTE-A가 무엇인지 주위에 물어보고 싶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통신과 '썸'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연애 직전의 애매한 감정을 이르는 유행어 '썸'처럼 소비자들은 최신 통신 규격을 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우리나라 통신 업계가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은 좋지만, 새 기술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다. 통신 텔레비전 광고와 휴대폰 대리점들은 '광대역 LTE-A가 좋다'고 외치지만 소비자들은 알듯말듯 애매한 상태다.

광대역 LTE-A는 기존 LTE-A보다 한 단계 상향된 신기술이다. LTE 발달은 광대역 LTE-A가 끝이 아니다. 2011년 7월 LTE 가 상용화된 이래 2013년 6월 LTE-A, 이번달 광대역 LTE-A에 이어 올해 말에는 3밴드 LTE-A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생소한 통신 규격 종류지만 속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최신 통신 규격일수록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빠르다. 광대역 LTE-A는 LTE보다 3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

이 때문에 각종 동영상 시청과 데이터 전송 건수가 많다면 최신 통신규격 선택이 유리하다. 실제로 SK텔레콤이 지난해 6월 LTE-A 상용화 이후 실시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LTE-A 주 가입자는 강남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남성이었다. 이들의 사용 행태는 방송 시청과 영상 다운로드였다. 판교를 포함한 강남 일대에는 IT 기업이 많아 최신 기술과 속도에 민감하다. 다음으로 가입자가 많은 연령대는 학생층이 많은 10~20대였는데 이들은 게임과 웹하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았다.

◆통신사 광대역 LTE-A 전쟁 개막

한편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26일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이동통신 패러다임은 순식간에 LTE-A에서 광대역 LTE-A로 바뀌었다.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채 안 되어 벌어진 상황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삼성전자로부터 광대역 LTE-A 지원 단말 '갤럭시S5 광대역 LTE-A'를 받아 판매에 들어간다.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통신3사의 광대역 LTE-A 서비스가 상용화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와 먼저 손잡고 지난 19일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세계 최초 광대역 LTE-A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 쥔 SK텔레콤은 피겨퀸 김연아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1등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T 타워에서 열린 SK 텔레콤 '광대역 LTE-A'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한 김연아가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KT와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A 단말 수급 문제로 서비스 상용화를 시도하지 못하다 삼성전자와의 물량 타결로 이번에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의 광대역 LTE-A 조기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전국망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통신 3사의 광대역 LTE-A 상용화 시기는 다음달 1일이었다. 하지만 시장을 선점하려는 통신 경쟁이 조기 상용화를 낳았다.

광대역 LTE-A 개막에 따라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전용 모델을 대거 준비 중이다. 소비자들은 연말까지 6~8종의 광대역 LTE-A 단말을 만나게 될 전망이다. 이제 선택만 남았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초고화질 영상시대 '활짝'

LTE 상용화 3주년… VOD비중 30%대 상승

SK텔레콤이 다음달 1일 국내 최초 LTE 상용화 3주년을 맞아 LTE 변화 자료를 발표했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기존 3G에서 4G LTE로 통신 세대가 진화하면서 초고화질·멀티 스크린 영상 서비스가 대거 활성화됐다.

우선 영상 콘텐츠 이용이 활성화됐다. SK플래닛 T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유료 콘텐츠 중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VOD) 비중은 LTE가 상용화된 2011년 17%에서 2012년 30%, 2013년 37%씩 매년 증가했다.

영상통화의 화질도 개선됐다. SK텔레콤은 LTE 출시와 함께 기존 64Kbps 기반 영상통화를 500Kbps 이상으로 개선해 8배 이상 선명한 영상과 2배 이상 깨끗해진 음성 기반의 고품질 영상통화 서비스인 'LTE 영상통화'를 서비스 중이다. 모바일 IPTV도 고화질로 업그레이드됐다.

하나의 스크린에서 여러 장면을 제공하는 멀티스크린 서비스도 등장했다. SK텔레콤은 한 화면에서 두 장면을 볼 수 있는 'T 스포츠 타구장 멀티뷰'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 기술 발달에 힘입어 SK 텔레콤은 최근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장윤희기자

<통신기술 진화에 따른 속도 변화 표>

통신규격	LTE	LTE-A	광대역 LTE-A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SKT·LGU+	SKT	SKT	미정
국내 상용화시기	2011년 7월	2013년 6월	2014년 6월	2014년 말
영화 한편 내려받는 시간	1분 50초	55초	37초	28초

/SK텔레콤 제공

전경련, 시장경제 교육나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시장경제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자유와창의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송병락 자유와창의교육원장,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민경국 강원대 교수, 이태욱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장. /전경련 제공

'개인정보 유출' KT에 8500만원 벌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1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에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외부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과거 비슷한 해킹사고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판단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KT, LTE 데이터 업로드 속도↑

노키아·에릭슨 협력… 업링크 콤프 기술 개발

KT(회장 황창규)가 노키아솔루션&네트웍스(NSN), 에릭슨과 함께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업로드 속도를 향상시키는 '업링크 콤프' 기술을 개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고객의 LTE 데이터 전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업링크 콤프는 여러 기지국이 협력을 통해 단말이 가장 좋은 전송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LTE-A의 주요기술 중 하나다.

KT 직원들이 업링크 콤프 기술이 적용된 지역에서 LTE 품질 점검을 하는 모습 /KT 제공

KT는 지난 1월부터 NSN, 에릭슨 등과 공동으로 업링크 콤프에 대한 기술협력을 진행해 왔다. 실제 대전·대구 지역 NSN·에릭슨 LTE망에서 업링크 콤프 현장 시험을 통해 기지국 경계지역에서의 단말 업로드 전송속도가 최대 52% 개선됐다.

서창석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시장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TM-9 기반의 양방향 콤프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업링크 콤프 기술을 상용화했다"며 "올해 안으로 전국에 걸쳐 모든 LTE 망에 업링크 콤프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814@

강동원·진세연·걸스데이 공통점은…

넥슨 광고계 큰 손으로… 연예인도 게임 모델 선호 추세

진세연

잘 나가는 연예인이들이 속속 넥슨 사단에 합류하고 있다. 이에 연예계와 광고계에서는 "넥슨이 큰 손"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다.

'시라소니'를 그린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감격시대'에서 신정태 역을 했던 김현중의 애인으로 열연해 남성 팬들을 사로잡은 진세연은 넥슨의 스마트폰용 퍼즐 액션 게임 '퍼즐 던파' CF 모델로 낙점됐다.

7월 1일 출시되는 이 게임에서 진세연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닥터 이방인'에서의 단아한 매력을 고스란히 발산할 예정이다.

퍼즐 던파는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의 인기 직업인 '남귀검사' '여거너' '여마법사'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퍼즐 게임. 상대편 몬스터(AI)와 번갈아 가며 3개 이상의 같은 모양 퍼즐을 맞추며 공격해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던전앤파이터' 유저는 강동원·하정우가 출연하는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이는 넥슨이 7월23일 개봉하는 이 영화와 제휴 이벤트 '던파:군도의 시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던파 유저는 개봉일 즈음에 이 영화를 단독으로 볼 수 있는 상영회에 참석할 수 있다.

넥슨과 영화사 측은 이날 유저들에게 '깜짝 선물'을 할 예정이다.

대세 아이돌 걸스데이도 넥슨을 빛내고 있다. 모바일 풀 3D MMORPG '영웅의 군단'을 알리는 것은 물론 게임 내 '걸스데이' 캐릭터를 출시한 상태다.

걸스데이의 네 멤버인 민아·유라·소진·혜리는 모두 시즌3 영웅 캐릭터로 등장하며 각각 활·검·지팡이·총을 무기로 활용한다.

앞서 넥슨은 톱가수 아이유를 던파의 모델로 기용했다. 지난해 최대 히트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김성균(삼천포)과 도희(조윤진) 커플을 액션 게임 '사이퍼즈'의 알리미로 내세웠다.

강동원(위 사진), 걸스데이

CF계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국악소녀' 송소희 역시 넥슨의 총싸움게임 '서든어택'에서 홍보모델은 물론 게임 내 캐릭터로 활약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극심한 불황이 이어지면서 광고업계와 연예계도 타격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넥슨과 같은 대형 게임업체 덕에 고사상태를 면하고 있다"며 "연예인들도 소비자의 관심이 큰 게임 상품의 모델로 나서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스마트폰서 탱크전 즐긴다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출시

스마트폰으로 박진감 넘치는 탱크전을 즐길 수 있다.

워게이밍은 모바일 탱크 게임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를 전세계 동시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는 '월드 오브 탱크'의 주요 플레이 요소들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모바일 기기 화면을 터치하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조작만으로 육중한 전차들을 운용하면서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재현된 8개의 전장에서 7대7 팀 전투를 벌일 수 있다.

iOS 7.0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4S 이상의 스마트폰 등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금전 거래시 유의할 사항

■칼럼 박민성 변호사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위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은 추후에 돈을 빌려 주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에는 대여금액, 변제기, 차용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여날짜, 차용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반드시 기재하여 두어야 하고, 또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에 대한 사항(이자율 등)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 차용인이 대여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3자에게 돈을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차용인과 미리 계획하여 돈을 받은 후 종적을 감추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에 차용인을 명확히 하고 '차용인의 요구에 의해 제3자에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제3자의 인적사항까지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보면 악성채무자로 인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줄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신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일정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진 02)592-2224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스플스센터에서 열렸던 롤드컵 결승전.

서울월드컵 경기장 'e스포츠 성지'

10월19일 롤드컵 결승전… 열기 기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e스포츠의 성지'로 떠오른다.

올해 게이머들이 가장 기대하는 '리그 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롤드컵) 결승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이엇게임즈는 '2014 롤드컵 결승'을 10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 10대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평가받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e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최대 수용인원이 6만4000명이기 때문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스테이스플스센터에서 열렸던 지난해 결승전 관중 1만1000명의 기록을 충분히 넘을 것으로 라이엇게임즈는 기대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롤드컵 예선전(그룹 스테이지)은 9월 중순부터 대만·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8강은 부산, 4강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롤드컵 예선전에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중국에서 3개 팀씩, 대만·동남아시아 2개 팀, 브라질·터키·러시아·호주·라틴아메리카에서 선발된 2개 팀 등 총 16개팀이 참가한다.

방식은 국가대표 축구경기인 월드컵과 같은 토너먼트다. 16개 팀이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예선전을 거친 후 각 그룹의 상위 2개 팀이 8강전을 연다.

이승현 라이엇 게임즈 한국대표는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선사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의 결승전을 통해 2002년 월드컵 당시 모두가 함께 느꼈던 열기를 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수상스키 부상 조심하세요

타기 전 스트레칭 필수… 통증 생기면 얼음 찜질 하도록

휴가 시즌이 찾아오면서 워터 스포츠를 즐기려는 인파가 바다와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다. 수상스키·래프팅·웨이크보드와 같은 수상스포츠가 더위를 한 방에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터 스포츠의 짜릿한 스릴에만 집중하다 자칫 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잘못타면 목·허리 부담

먼저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뒤로 젖혀 중심을 잡는 수상스키는 타는 자세로 인해 허리에 강한 압박이 발생하고 팔과 어깨에 상당한 힘이 들어간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수상스키를 즐기게 되면 목과 허리에 부담이 생긴다. 특히 흐트러진 자세로 수상스키를 타면 부담이 더욱 커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허리에 충격을 입어 척추가 손상될 수 있다. 또 허리 근력이 부족하거나 평소 척추 질환을 앓고 있다면 수상스키와 같은 스포츠는 삼가는 것이 좋다.

◆래프팅 잘못하면 회전근개파열

물살이 빠른 계곡에서 고무보트에 여러 명이 타고 노를 저어야 하는 래프팅은 반복적인 어깨 사용으로 회전근개파열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회전근개파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질환으로 자신의 체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어깨를 쓰게 될 때 찾아온다. 팔을 어깨 높이 정도로만 올려도 심한 통증이 있고 팔을 뒤로 돌리기 어렵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게다가 빠른 물살에서 커브를 돌거나 보트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목과 허리를 다칠 수 있으며 보트에 양반다리로 앉아 급류를 지나면 바닥부터 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척추에 전해져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웨이크보드 묘기는 자제해야

물 위에서 타는 스노우보드인 웨이크보드는 발이 보드에 묶여 있어 발목 부상의 위험이 높은 스포츠다. 또 초보자의 대부분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꽉 주기 때문에 목과 팔·어깨·허리 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웨이크보드를 타면서 부상을 예방하려면 정확한 자세와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위험천만한 묘기는 자제해야 한다. 특히 초보자라면 기술을 배우기보다 온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물놀이, 탈모 위험 높인다?

이상 증상 나타나면 병원 찾아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즐기는 물놀이가 탈모 위험을 높일 수 있다.

◆화학물질·염분 제거가 관건

여름에는 두피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다. 수영장의 소독약, 바다 속 염분, 비위생적인 야외분수, 그리고 뜨거운 자외선이 그것이다.

우선 염소로 소독된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의 물은 두피와 모발의 수분을 빼앗아 가며 모발의 단백질 층인 케라틴을 파괴한다. 또 바다 속 염분은 모발의 단백질을 응고시키고 딱딱하게 만들어 탈모의 원인이 된다.

이와 함께 일부 비위생적인 야외분수도 문제다. 건강한 두피 표면은 4~6PH 정도의 산성막을 이루고 있는데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등의 부유물이 들어간 야외분수의 물은 두피의 염증을 악화시키고 탈모 증상을 촉진할 수 있다. 아울러 여름철 뜨거운 자외선도 주의해야 한다. 두피가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두피 표면의 노화가 촉진되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놀이 전후에는 항상 꼼꼼히 두피와 모발을 관리해야 한다. 물놀이 전에는 두피 전용 미스트나 에센스를 뿌려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두피 보호막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게다가 물놀이 직전에는 자외선 차단 로션을 바르고 반드시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두피와 모발에 달라붙은 화학물질이나 염분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보습 효과가 높은 샴푸로 머리를 감고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머리를 말릴 때는 자연 바람이나 찬바람을 이용해 두피를 완전히 말려야 한다.

모발이식 전문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은 "이미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놀이로 인해 탈모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두피와 모발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기성용·김보경 담은 칼스버그 한정판 출시 칼스버그가 국내 한정판 프리미어리거 캔맥주 출시를 기념해 26일 무교동에서 사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한정판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김보경·파트리스 에브라·스티븐 제라드의 모습을 캔에 담고 있다. 다음달부터 편의점·할인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칼스버그 제공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장관 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부대사업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문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전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상위법에서 정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탈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한 의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문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켰으며 시행규칙 제·개정권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질서를 어지럽히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정책 폐기와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으며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다음 달 2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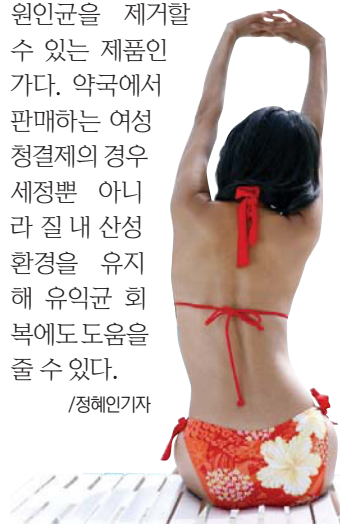
여름철 여성청결제 알고 사용하자

냄새·가려움 증상, 습한 환경에서 경험

여름철에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을 다녀온 후 냄새·가려움·분비물 증가 등 민감한 부위의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증상은 여성이라면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며 특히 습한 환경에 자주 노출될 경우 각종 세균 증식으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이나 관리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 민감한 부위 세정 시 알칼리성 비누나 바디클렌저를 사용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질 내 산도 균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여성청결제를 선택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여성청결제와 관련해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주요 부위에 쓰는 제품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고 의사·약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제품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냄새·가려움·분비물 증가 등을 유발하는 원인균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인가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여성청결제의 경우 세정뿐 아니라 질 내 산성 환경을 유지해 유익균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혜인기자

하루 한시간 자전거 타면 한달 후 2.5kg 체중감량

자전거를 찾는 여성들이 부쩍 많아졌다. 무조건 굶기보다 먹으면서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전거타기가 대표적인 건강 다이어트 방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전거타기는 전신운동으로 심폐기능 강화, 내장지방과 복부비만 감소에 효과적이다. 근육량을 증가시켜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 수 있고 체내 소비칼로리와 기초대사량을 높여 쉽게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뀔 수 있게 도와준다.

시속 25㎞ 속도로 타면 시간당 200~300㎉가 소모되는데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300㎉ 정도 줄이고 매일 한 시간씩 자전거를 타면 한 달 동안 약 2.5kg 정도의 체중감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전거 전문기업 알톤스포츠(대표 박찬우)는 자전거 다이어트를 시작하려는 여성들을 위해 올바른 운동이 되도록 몇가지를 조언했다.

먼저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장의 높이, 안장의 전후 위치, 핸들과 안장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안장의 높이는 앉은 채 다리를 쭉 폈을 때 발끝치가 아래로 놓인 페달에 닿는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페달을 밟을 때 다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척추에 무리가 간다.

안장의 전후 위치는 안장에 앉아서 두 페달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발을 페달에 올렸을 때 구부러진 무릎의 끝과 페달 중심이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가 가장 좋다. 핸들과 안장의 거리는 앉아서 핸들을 잡았을 때 상체가 45도 정도 숙여지는 거리가 적당하다.

대부분의 생활자전거 취급 매장에서는 체형에 맞는 자전거를 고를 수 있도록 피팅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조언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전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적합한 것은 최근 인기가 높아진 생활형 하이브리드 자전거다. 산악자전거나 로드사이클, 미니벨로 등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 체형이 작은 여성들도 쉽게 탈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살 빼는 수술 신중해야

위밴드·위소매절제술…고도비만 환자만 대상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조건적인 수술을 고려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체질량지수 등 심해야 수술 대상

일반적으로 비만이란 체지방이 과잉 축적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 체질량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고도비만으로 분리된다.

살을 빼기 위한 수술적인 방법은 이런 고도비만 환자가 대상이다. 식이요법, 운동, 약물적인 치료 등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체질량지수 35kg/㎡ 이상인 환자, 또는 내장비만과 복부비만이 심하고 체질량지수가 30kg/㎡ 이상인 환자,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합병증이 심한 경우를 수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주관적으로 살이 쪘다고 느껴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18세 이상부터 기대수명이 많이 남아있는 60세 이하의 사람만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수술 후유증 적고 회복 속도 빨라

수술을 생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망설일 때가 있다. 수술에 대한 불안감과 부작용 걱정이 앞설 때다.

하지만 국내 고도비만 수술은 복강경 수술 도입 후 기존에 나타났던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회복 속도 역시 빨라졌다. 또 현재 국내에서 주로 시행되는 수술은 위밴드수술과 위소매절제술로 알려진 복강경 수술을 통한 섭취제한술식이다.

위밴드수술은 짧은 수술 시간과 간단한 수술 방법이 장점이다. 위와 식도의 연결 부위에 위밴드를 설치한 뒤 수술 후 조금씩 풍선을 부풀려 음식이 넘어가는 입구를 조이는 방법이다.

위밴드수술과 함께 시행되는 위소매절제술은 위의 한 쪽을 절단해 위를 가늘고 긴 원통형으로 성형하는 방법으로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술을 받아도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비만 환자는 체중의 약 3분의 2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지만 이때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이 걸린다. 또 10년 후에는 원래 체중의 약 절반 정도로 체중이 줄고 이와 함께 당뇨병·고혈압 등의 합병증도 사라지거나 개선될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즐기는 다이어트…저칼로리 푸드로

기름 뺀 피자·착한 모밀 소바·연어샐러드 좋아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다이어트족들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무조건 굶거나 원푸드를 고집할 경우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요요 현상은 물론 질병까지 초래할 위험이 높다.

이런 가운데 외식업계가 음식을 맛있게 즐기면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저칼로리 메뉴들을 잇따라 선보여다이어트족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먼저 대표적 고열량 음식으로 알려진 피자도 기름기를 없앤 제품이 있다. 에이프릴마켓의 '시금치 피자'는 도우를 화덕에 구워 기름이 걱정이 없고 그 위에 칼로리가 낮은 채소인 시금치를 토핑으로 얹어 신선한 식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메뉴이다.

시금치는 100g당 30㎉의 저칼로리 채소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원할하게 해주며 피부탄력과 노화방지,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막는 등의 효능을 가졌다.

스쿨푸드의 '착한 냉소바'는 이 업체의 대표적인 하절기 메뉴다. 쫄깃한 메밀 면발의 식감과 깔끔한 가다랑어 육수의 청량감이 조화를 이룬다. 메밀은 일반 냉면보다 열량이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저칼로리 기능성 식품이다.

부담 없는 한 끼식사나 다이어트로 인해 샐러드 메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오리온에서 운영하는 마켓오 레스토랑의 '연어&풋콩 샐러드'는 수퍼푸드로 알려진 훈제연어와 새콤한 자몽, 고소한 풋콩과 크리미한 아보카도까지 가득 담긴 샐러드이다.

훈제연어는 100g당 170㎉ 정도의 비교적 낮은 칼로리와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피부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 /정영일기자

젊음 유지하려면 토마토 먹어라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토마토는 젊음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기특한 음식이다. 토마토의 주 성분인 '리코'펜은 익혀 먹는 것이 체내 흡수에 효과적이며, 수분이 많아 생으로 먹기보다 주스로 먹는 게 효과적이다. 건강도 맛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토마토 요리 레시피를 소개한다. 자료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뽀모도로토마토파스타

분량: 1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15㎉ / 조리시간: 20분

재료: 토마토홀 450g, 스파게티 80g, 양파 20g, 마늘 2개, 화이트와인 30㎉, 고추·바질·타임·오레가노·월계수잎,·로즈마리·소금·후춧가루·올리브오일 약간

1.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양파를 볶는다.
2. 화이트와인을 넣고 알코올을 날려준다.
3. 토마토 홀을 손으로 으깨 넣고 바질·타임·오레가노·로즈마리를 넣고 저어주며 끓인다.
4. 팬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고추를 넣어 볶다가 ③의 토마토소스를 넣는다.
5. 삶은 면을 건져내서 넣은 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차가운토마토수프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189㎉ / 조리시간: 40분

재료: 토마토 250g, 홍피망·오이 100g, 양파 1/2개, 올리브오일 30g, 물 25g, 토마토 주스 50g, 크루통·소금 약간, 마늘 1쪽, 레몬 식초 25g

1. 토마토와 피망은 속의 씨를 제거하고 양파·오이·마늘은 손질 후 적당한 크기로 썬다.
2. ①을 믹서에 넣어 곱게 간다.
3. ②를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건져 후루룩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만든다.
4. ③에 올리브오일·레몬 식초·물·토마토 주스·소금을 넣고 다시 믹서에 간다.
5. ④를 냉장고에 넣어 차게 보관한다.
6. 먹기 직전에 홍피망과 양파 잘게 썬 것과 크루통을 위에 얹어준다.

◆토마토치즈구이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190㎉ / 조리시간: 40분

[재료] 토마토 5개, 모짜렐라치즈 70g, 양파·청피망·노랑 파프리카 노란색 1큰술, 소금·통후추 약간

1. 토마토의 윗 부분을 잘라 내고 속을 파낸다.
2. 양파·청피망·노란색 파프리카를 사방 0.3㎝ 정도로 잘라 소금과 통후추로 버무린다.
3. 토마토 속을 ②의 재료로 채워 모짜렐라치즈를 올려 250℃의 오븐에 3분간 굽는다.

비핸즈카드 제공 (제품번호:BH2137)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박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적극적이 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성상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다.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이맘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매칭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차원적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칭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랭키닷컴-랭키순위란? 최근 12주간 랭키 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를 자료로 User Session Visits 기준으로 집계한 순위입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 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불필요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온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아웃도어·패션, 장마철 마케팅 시동

빈폴아웃도어, 레인코트 물량 20% 늘려
레인부츠·백팩 등 방수 아이템 출시 봇물

패션·아웃도어업계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레인 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빈폴아웃도어는 올여름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레인코트와 부츠의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가량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부터 판매를 시작한 빈폴아웃도어의 '수지 레인코트'는 트렌치코트 스타일로 허리의 선을 강조해 슬림한 실루엣을 살려주는 것이 특징이다. 트렌치코트 느낌이 나는 베이지와 짙은 주황색이 섞인 디자인, 시원한 느낌을 주는 하늘색과 카키색 디자인 등 색깔과 무늬도 다양하다. 회사 측은 "이른 폭우와 집중호우에 발빠르게 대비하는 소비자 덕분에 벌써 전체 물량의 40% 넘게 팔렸다"고 전했다.

다른 아웃도어업체들도 앞다퉈 레인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젠벅은 상큼한 커플 패션에 적합한 '커플 레인재킷 2종'을 내놨다. 활동감을 강조한 재킷형 '퍼텍스 레인재킷'과 클래식한 감각의 사파리형 '인터홀 레인코트' 2종으로 구성, 원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마모트가 선보인 '트래블 레인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어도 손색이 없는 트렌치코트 스타일로 코랄색과 터키 옥색 등 2가지가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아웃도어 레인재킷은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에 방수·투습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장마철 인기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폭우 속에서도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굽이 있는 레인부츠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 신발 브랜드 락피쉬는 웨지힐 스타일의 6cm 굽과 끈 장식이 들어간 '루시 레이스업 웨지 레인부츠'를 내놨다. 헌터·에이글 등에서도 컬러·패턴·길이별로 다양한 레인부츠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레인 커버가 따로 필요없는 방수 백팩도 눈길을 끈다.

하이시에라는 방수 지퍼와 소재를 사용한 '시카고 리버 백팩'을 선보였다. 심플한 디자인에 야간에도 빛을 반사시키는 3M을 가방 앞쪽에 덧붙여 아웃도어 활동이나 시야가 어두운 장마철에 사용하기 좋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집안 습기 잡기 간단해요"

굵은 소금·물 채운 페트병을 그릇에…

장마철에는 높은 습도로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곰팡이가 생겨 집안 내 퀴퀴한 냄새가 나기 쉽다. 눅눅해진 집안 습기를 잡기 위해선 굵은 소금을 그릇에 담아 집안 곳곳에 두면 좋다. 소금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눅눅해진 소금은 햇빛에 말려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페트병도 습기제거에 도움이 된다. 페트병에 물을 70% 정도 채워 냉동실에 얼린 후 그릇에 올려 실내에 놓아두면 습기가 페트병에 붙어 물방울이 된다. 또한 얼린 페트병을 선풍기나 바람이 부는 쪽에 놓아두면 냉풍기 효과도 볼 수 있다.

습기에 취약한 주방 양념통의 경우 이쑤시개를 넣어두면 된다. 나무로 된 이쑤시개는 습기를 대신 흡수한다. 양념통을 보관하는 곳에 말린 식빵을 넣어두는 것도 습기로 인해 양념이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밀폐된 옷장이나 이불장은 곰팡이와 좀벌레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옷장에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 넣어두고, 닿는 면적이 넓어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이불은 사이사이 신문지를 한 두 장씩 끼워두면 도움이 된다. 또 전용 습기제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때 습기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옷장 아래쪽에 두는 것이 좋다.

옷장 속 좀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선 로즈마리나 라벤더 잎을 말린 후 천에 싸서 넣어두면 된다. 이런 방법이 까다롭다면 전용 제품을 사용한다. 애경에스티 '홈즈 방충선언 옷장용'을 사용하면 좀벌레도 쫓고 옷장 속 퀴퀴한 냄새도 없앨 수 있으며 후로랄향과 소프향 2종 중 취향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다.

비에 젖은 신발은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하고 신발장 속 다른 신발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마른 천으로 안과 밖의 물기를 닦아낸 뒤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야 한다. 땀과 습기로 인해 눅눅해진 신발은 신문지를 안쪽에 넣은 후 벽돌 위에 올려두면 도움이 된다. 신발장 속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선 신발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두거나 커피 찌꺼기를 거즈에 싸서 놓아둔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가을·겨울 컬렉션 '디지털 솔저' 공개 26일 서울 중구 충무로 MCM 스페이스 명동점에서 모델들이 MCM 2014 가을·겨울 컬렉션 '디지털 솔저'(Digital Soldier)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컬렉션은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글로벌 유목민을 표현한 것으로 카모플라주, 애니멀 프린트를 통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MCM 제공

캐주얼로 즐기는 캠핑룩족 부쩍 늘어

활동성과 실용성, 가격부담 없는 연출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름철 캠핑 열기가 뜨겁다. 소수의 마니아 층만 즐기던 캠핑이 대중적인 취미와 여가생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제 텐트 안에서 잠자고 밥먹는 단순한 활동에서 벗어나 테마 캠핑으로 진화한 것과 젊은 캠퍼들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젊은 캠퍼들 사이에서는 가격부담 없는 활동성과 실용성이 강조된 편안한 캐주얼 의류가 캠핑룩으로 선호되는 편이다.

연인과 함께하는 캠핑에서는 밝은 색상과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캠핑룩이 화사함을 더할 수 있다. 모노톤의 의상보다는 최대한 밝고 경쾌한 색상을 고르고 스트라이프, 물방울, 꽃무늬 등과 같은 패턴을 커플로 입거나 통일감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인트로 가미하면 커플 캠핑룩으로 손색이 없다. 소나기에 대비한 레인코트를 준비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가까운 친구들끼리 캠핑을 떠난다면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트렌디하면서 독특한 캠핑 스타일을 연출해 보는 것도 좋다. 반바지와 면 티셔츠는 무심한 듯하지만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아이템이다.

활동하기 편안한 것은 기본이고 멋스러운 그래픽 티셔츠에 컬러 반바지를 매치하면 거창한 전문 의류 없이도 누구보다 튀는 캠핑 스타일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줄 스냅백, 백팩 등의 액세서리로 마무리하면 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푸마, 짝짝이 스니커즈 '스웨이드 트릭스' 출시

푸마는 양쪽 신발의 색깔이 다른 스니커즈 '스웨이드 트릭스'를 한정판으로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선보였던 '짝짝이 축구화' 트릭스(Tricks)의 라이프스타일 버전으로 핑크와 블루 색상을 적용했다. 푸마의 스니커즈 스웨이드 클래식 트릭스와 퓨처 스웨이드 라이트 트릭스, 브라질 트릭스 등 3가지 스타일로 나온다.

/박지원기자

“‘절대악’ 캐릭터, 부담이자 도전”

'신의 한 수'로 8년 만에 악역 열연

이범수

곁에서 본 이범수(44)의 왼쪽 새끼손가락은 휘어 있었다. 다음달 3일 개봉될 영화 '신의 한 수'의 액션신을 찍던 중 손가락이 골절했지만 촬영을 계속하기 위해 수술을 받지 않아 휘어진 것이라고 했다. '신의 한 수'는 범죄로 변해버린 내기 바둑판에 사활을 건 꾼들의 이야기다. 극중 내기 바둑계의 '절대악' 살수 역을 맡은 이범수는 “노력한 만큼 캐릭터가 만족스럽게 표현된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 완성된 영화를 본 소감은.

“시사회 직후 감사하게도 주변 반응이 좋았다. 일단 개봉하고 경쟁작과 경쟁하며 관객의 평을 들어봐야겠지만 적어도 부끄럽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분 한 분 다 멋지고 존재감 있게 잘 나와 마음에 들었다.”

'신의 한 수'의 이범수.

> 영화 부끄럽지 않게 나와 다행
> 재회한 정우성, 한결 같은 배우
> 아이 낳을수록 계속 낳고싶어

–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든 생각은.

“바둑을 소재로 액션을 한다는 게 생소했다. 한국말이니 알아는 듣겠는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야기가 되겠다 싶더라. 바둑 소재이지만 도박 이야기였다. 먹고 먹히는 매정한 세계였다.”

– 영화 '짝패' 이후 8년 만의 악역이었다.

“부담이 있었다. '짝패' 때보다 못할 수도 똑같이 할 수도 없지 않나. 다른 모습으로 더 악하게 보여줘야 했다. 꼭 풀고 싶은 산수 문제처럼 잘 하고 싶었다.”

– 극중 모습이 무서울 정도로 잔인했다.

“예전에 내가 출연한 코미디 영화 '오! 브라더스'를 보면서 막 웃은 적이 있다. 바보처럼 스스로 봐도 극중 모습이 웃겼다. 이번에도 비슷한 체험을 했다. 영화 속 내 모습이 무섭게 느껴졌다. 칼로 찌를 때, 함께 바둑을 두던 안성기 선배가 절망에 빠졌을 때 씩 웃는 모습이 그랬다.”

– 살수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나.

“그냥 악역도 아니고 '절대악'이라는 캐릭터라서 더 부담됐다. 그러나 도전이기도 했다. 다행히 의도대로 잘 표현된 것 같다. 살수는 말이 많은 인물이 아니라서 기를 욕설이 아닌 눈으로 발산하려고 했다. 또 냉정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지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했다. 예민해보이도록 '올백' 머리 스타일과 안경을 제안했다.”

– 살수에게 복수 하는 태석 역의 정우성과 오랜 만에 다시 호흡을 맞췄다.

“우성이를 좋아한다.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처음 만났고, '러브'에서도 미국 LA에서 함께 촬영하며 고생했다. 13~14년 만에 '신의 한 수'로 만났는데 우성인 마음이 한결 같아 보기 좋더라. 신뢰가 가고 배려심이 있는 배우다.”

– 극 마지막에 정우성과 대결하는 액션신은 마음에 들었나.

“마지막 액션신이 가장 우려했던 장면이었다. 복수의 화신과 악의 화신이 만나는 것이지 않나. 다칠까봐 긴장했지만 서로 믿고 연습했기에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다.”

– 평소 바둑에 관심이 있었나.

“5~6년 전 서점에 가서 '조훈현 바둑 첫 걸음' 1,2권을 사다 보면서 바둑을 배웠다. 그런데 혼자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회에 바둑 좀 배워보고 싶어서 9단 선생님을 만나 부탁했더니 속성으로 한두 달 만에 배울 수 없다고 하더라. 냉정해보였는데 일리는 있다. 연기도 한두 달 만에 배울 수 없지 않나. 극중 호흡을 맞춘 안성기 선배가 바둑 애호가이긴 한데 초보인 나와 수준 차이가 나서 함께 두지 못했다.”

– 안성기가 극중 '고수의 세상은 천국, 하수의 세상은 지옥'이라고 말했다. 어느 편인가.

“1~2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든다. '난 행복한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결론은 난 행복하다. '신의 한 수'를 끝으로 배우 생활을 못한다고 해도 여한이 없다. 그동안 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주어진 여건에서 연기에 최선을 다했다.”

– 요즘 연기 외의 관심사가 있다면.

“육아다. 아이를 낳을수록 계속 낳고 싶다. 그리고 올 여름엔 가족 여행을 떠날까 한다.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긴데다 그동안 촬영 때문에 바빠 가족과 제대로 여행한 적이 없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제이에스픽쳐스 제공

트로트로 흥나는 안방

'트로트의 연인' '기분 좋은 날'…"폭넓은 시청자 확보"

트로트가 안방을 흥겹게 하고 있다.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가 특정 트로트를 부르며 활력을 준다. 아예 트로트를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다. 친근하게 다가가 폭넓은 시청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은 지난 23일 첫 회 방송부터 반짝이 의상과 구성진 트로트 가락으로 코믹 장르의 매력을 부각했다.

작품은 트로트 꿈나무 최춘희(정은지)와 트로트를 경멸하지만 재기를 위해 최춘희를 가수로 키워야 하는 장준현(지현우)의 만남을 그린다. 드라마 배경 음악으로 활용된 트로트가 귀를 사로잡아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정은지는 작품에서 가수 남진의 '님과 함께'를 자주 부른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가사는 소녀가장 최춘희의 꿈과 고단함을 그려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최춘희는 긍정적이고 발랄한 인물이기도 하다. '님과 함께'를 빠른 리듬으로 바꿔 부르며 자신의 현 감정과 상황을 대신한다.

이재상 PD는 "평범한 사람들이 좋아할 소재라고 생각하며 이웃과 사회에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트로트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배우 나문희는 SBS 주말극 '기분 좋은 날'에서 가수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흥얼거린다. 이 노래는 작품의 OST다.

가수 홍진영은 원곡의 신나는 트위스트 리듬에 특유의 콧소리를 가미했다. 작품은 홀로 키운 세 딸의 완벽한 결혼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엄마가 오히려 시집을 가게 되는 유쾌한 내용을 다룬다. 홍진영의 '내 나이가 어때서'는 극을 한층 더 경쾌하게 한다.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26일 "트로트를 보여주는 방식이 중요하다"며 "구식 느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통합이 가능해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효진기자 jeonhj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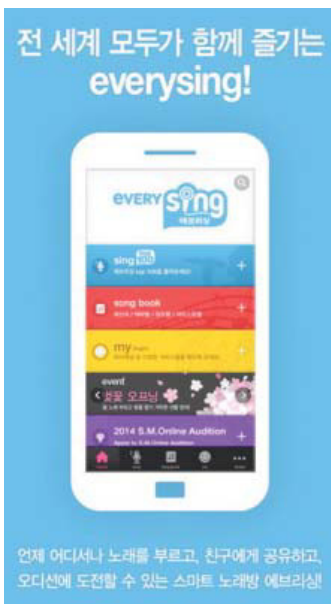
마음껏 듣고 부르고 즐겨라

가요계 무료 서비스 열풍 부르고·에브리싱·ET 주목

최근 가요계에 무료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 열풍이 불고 있다.

대형 기획사부터 다양한 아티스트가 소속된 연예기획사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료로 노래를 듣거나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 오디션부터 노래듣기까지

올초 서비스를 시작한 무료 뮤직앱 '부르고'는 뮤지션은 물론 대중에게 주목받고 있다. 출시 6개월만에 10만 다운로드를 기록할 정도다. 단순히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는 개념을 넘어섰다. 이용자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녹음, 촬영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개할 수 있으며 실력이 검증되면 전문 멘토에게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이 간편하다는 점도 '부르고'의 강점이다. '부르고'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다가 녹화를 해서 친구에게 음악이 깔린 영상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1500곡의 노래가 들어있는 노래방을 통해 노래를 부르고 녹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샤이니의 '에브리바디'를 작곡한 작곡팀 코치 앤 샌도와 '부르고'가 가요계 신진 스타발굴에 나섰다.

에브리싱

◆ 노래방 서비스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에브리싱'앱은 듣는 즐거움보다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강점이다. '에브리싱'앱을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녹음과 녹화 편집, 오디션 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유 등도 할 수 있다. 노래를 녹음할 경우 사용자가 원곡의 키를 조절할 수 있다.

특히 'MY 채널'을 통해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녹음, 녹화곡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한다. '에브리싱'앱은 국내에서 노래방 1위 앱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2013 구글 플레이 앱 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 비용 없이 음악 즐겨라

브라운아이드소울, 버즈 등이 소속된 산타뮤직은 지난 9일 리워드 앱 'ET'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ET'는 금전 지불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짜 음원을 얻을 수 있어 기존 음원 유통 시장다르다.

ET에 가장 먼저 오픈 된 상품은 국내 최초의 음원 서비스업체인 소리바다에서 제공하는 음악이다. 이후 영화와 방송 부분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게임머니·웹툰·e북·공연티켓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의 실용적 상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색 투표 이벤트인 '이티 배틀'과 같은 앱 안에서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자신만의 사진과 생활 지식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매일 상품이 쏟아지는 ET티켓찬스방 등 다양한 놀이 공간이 있다. 공연정보를 얻고 뮤직비디오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비용 없이 음원을 구입하는 대신 앱 상의 광고를 실행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무료 뮤직앱 '부르고' 주요기능

조성모 매실 광고 재계약

가수 조성모가 매실음료 광고를 재계약 했다. 1999년 광고 계약 후 15년 만이다.

조성모는 지난달 tvN 'SNL 코리아' 매실의 추억 코너에서 과거 자신이 출연한 매실 광고를 재현했다. 당시 광고는 매실음료를 마시며 올린 새끼 손가락과 조성모의 환한 미소가 어우러져 화제가 됐다.

이날 조성모는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너를 깨물어 주고 싶어"라는 과거 광고 속 대사를 재현해 시청자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방송 후 매실 음료 본사로 전화를 해 조성모의 모델 재계약을 요청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였다.

매실음료 업체는 조성모가 'SNL 코리아'에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객에게 700여 개의 매실 제품과 '우리도 이럴 줄 몰랐어요'라는 재치 있는 문구를 담은 화환을 보냈다. 조성모의 단독 콘서트에도 관객이 마실 2000개의 음료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tvN 'SNL코리아' 조성모 /방송캡처

한편 조성모는 뮤지컬 '카페인'의 남자 주인공으로 오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삼성동 KT&G 상상아트홀에서 공연한다. /전효진기자

김현중, 월드 투어 나선다

7개국 11개 도시 순회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해외 팬들을 만나기 위해 월드투어를 개최한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현중이 오는 28일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 일본 요코하마·히로시마·오사카, 태국, 멕시코, 페루 등 총 7개국 11개 도시를 순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아시아 팬 미팅 투어 이후 연기와 음악 활동에 매진했던 김현중은 이번 '2014 김현중 월드투어: 몽환'을 통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음악과 특별한 무대로 세계 팬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번 투어의 제목 '몽환'은 팬들과 함께하는 꿈 같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김현중은 3개월여 동안 이어질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공연 연습에 매진 중이다.

소속사에 따르면 월드투어 개최 확정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등에서 콘서트 진행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이달 중 최대 5개국 투어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현중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한 네 번째 싱글 앨범 '핫 선'으로 오리콘 데일리와 위클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류스타로서

'2014 김현중 월드 투어 : 몽환' /키이스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신담수 권오율
윤성원 송요셉
이상훈 차명욱
임태호 서동주
송영재 이재영
문현영
노혜란 정옥주

원작 | **김호연** 각색 | **이서환** 연출 | **홍현우**
제작 | **김민섭 이훈경** 기획 | **엄용렬 경제민 김도경 김진규** 조명디자인 | **김종석** 무대디자인 | **김종덕**
음향오퍼 | **김성윤** 조명오퍼 | **김병헌** 의상 | **이훈경 정지은** 포스터디자인 | **김도경** 사진 | **장지융**
후원 | **나무옆의자 출판사** 주최/주관 | **쇼닥터** 제작 | **제자백가**

한수연 '하이스쿨' 출연

배우 한수연(사진)이 KBS2 드라마 '하이스쿨 : 러브온'(이하 '하이스쿨') 출연을 확정했다.

한수연은 '하이스쿨'에서 천국고등학교 양호선생님 최소진 역을 맡았다. 최소진은 천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솔직하고 엉뚱함이 주 캐릭터다. 또 세상 모든 연애에 큰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에 소극적인 인물이다.

한수연은 "시놉시스를 받자마자 쾌활하고 발랄한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다"며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지어지는 재미있는 인물"이라고 역할을 소개했다.

앞서 그는 드라마 '일말의 순정'과 영화 '런닝맨' '이방인들'로 연기력 호평을 받았다.

'하이스쿨'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남학생을 구하려다 인간이 된 천사의 이야기를 그린다. 다음달 11일 첫 방송.

/전효진기자

'트랜스포머' 흥행 스타트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신작 '트랜스포머:사라진 시대'('트랜스포머4'·사진)가 올해 국내 개봉한 영화 중 최고의 오프닝 기록을 세웠다.

2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 전국 1512개 상영관에서 개봉한 '트랜스포머4'는 46만7484명(매출액 점유율 80.5%)을 모아 일일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개봉 첫날 37만7214명을 동원해 올해 최고의 오프닝 성적을 세운 '엣지 오브 투모로우'를 앞질렀다.

그러나 시리즈 전편인 '트랜스포머3'(54만4995명)의 오프닝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트랜스포머1'은 30만6678명, '트랜스포머:패자의 역습'(트랜스포머2)은 47만8269명을 개봉 첫날 동원했다.

'트랜스포머4'는 시카고를 무대로 펼쳐진 전작의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마지막 결전으로부터 5년 뒤 이야기를 그렸다.

한편 일일 박스오피스 2위는 이선균 주연의 '끝까지 간다'(4만3760명)였다. /탁진현기자 tak0427@

혼인빙자 밀당 로맨스 안방에

tvN 새 금토극 '연애 말고 결혼'… 연우진·한그루 찰떡호흡 기대

배우 연우진과 한그루가 tvN 새 금토극 '연애 말고 결혼'에서 혼인빙자 밀당 로맨스를 선보인다.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연애 말고 결혼' 제작발표회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찰떡호흡을 자랑했다.

한그루는 "촬영 시작 전 연우진 씨 작품과 사진 등을 살펴봤는데 너무 교회 오빠같아서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보니 공기태 캐릭터랑 정말 비슷하다. 보이는 것과 달리 능글맞다. 아마 '연애 말고 결혼'은 연우진의 재발견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연우진도 "한그루씨는 주장미 캐릭터에 100% 일치한다"며 "주장미처럼 실제로도 씩씩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그 에너지를 주는 친구라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극중 제 캐릭터 공기태가 까칠하기도 하지만 능글맞기도 하다. 사실 제가 좀능글맞다. 연기니까 조금 과장하긴 했지만 제 (원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한그루와 연우진은 질의응답시간에 앞서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 패션쇼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마 맞대고 고개 돌리기를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연우진과 한그루는 각각 공기태와 주장미 캐릭터를 연기한다. 드라마는 삼대독자 장손으로 집안에서 결혼을 강요받는 '완벽남' 공기태가 집안 어른의 뜻을 꺾을 목적으로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여자 주장미를 애인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연기돌' 정진운(2AM)과 한선화(시크릿)는 각각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쁜 남자 한여름과 결혼 따윈 필요없는 완벽한 여자 강세아를 연기한다. '원조 연기돌' 허정민은 극중 주장미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이동훈 역을, 떠오르는 신예 윤소희는 결혼을 로또로 여기는 여자 남현희를 맡아 극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연애 말고 결혼'은 다음달 4일 오후 8시40분 첫 방송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움에서 열린 tvN 드라마 '연애 말고 결혼'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배우 한그루와 연우진이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SBS 월화극 '닥터이방인' 이종석·최정우 /아우라미디어 제공

KBS2 수목극 '조선총잡이' 이민우 /방송캡처

그 감독엔 그 배우… 출연하'으리'

'닥터 이방인' 최정우·'조선 총잡이' 이민우

"그 감독 작품엔 이 사람 꼭 있다."

특정 감독 혹은 작가와 함께하는 배우가 눈에 띈다. '김수현 사단' '노희경 사단' 등은 이미 대중에게도 익숙하다. 배우 고경표는 장진 영화 감독 사단이다. tvN 'SNL 코리아'부터 영화 '하이힐'까지 함께 했다.

지난달 '하이힐' 기자간담회에서 장진 감독은 "고경표는 앞길이 창창한 배우인데 자꾸 엮지 말라"며 "좋은 감독들이 섭외하려고 해도 머뭇거리게 된다"고 걱정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처럼 사단과의 관계는 배우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배우 최정우와 이민우가 전작을 함께한 감독과 손 잡았다.

최정우는 SBS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서 진혁 PD와 재회했다. 최정우와 진혁 PD의 만남은 '찬란한 유산'(2009)부터 시작됐다. 이후 '검사 프린세스'(2010), '시티헌터'(2011), '주군의 태양'(2013) 등 총 5개 작품에 출연했다.

앞서 그는 탐욕스럽고 야망 있는 진지한 캐릭터를 주로 연기했다. 이번 작품에선 승진하기 위해 욕심을 내는 명우대병원 흉부외과 과장 문형욱 역할을 맡았다. 욕심이 귀엽게 그려져 극의 재미를 배가한다. 또 이종석과 짝을 이뤄 '주인님과 노예'의 관계를 형성했다. 남남 케미가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

지난 25일 첫 방송된 KBS2 수목극 '조선 총잡이'에선 배우 이민우가 출연한다. 작품은 2011년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김정민 PD가 연출했다. '공주의 남자'는 당시 두꺼운 마니아 층을 형성했고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당시 이민우는 정종 역을 맡았다.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경혜(홍수현)와 애틋하게 시선을 맞추며 하차해 '가슴이 먹먹하다'는 호평이 있었다.

'조선 총잡이'에선 고종 역할이다.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칼잡이가 총잡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민우는 개화를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젊은 왕을 연기한다. 첫 회 첫 장면에 등장해 '공주의 남자' 정종의 여운을 기억하던 시청자와 인사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파헤쳐진 내시 묘역

권기봉의 **도시산책** <85>

2년 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서 북한산 의상봉을 오를 때 약 3만㎡의 땅이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문제는 그곳이 단순한 산자락이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내시'들의 집단묘역이 있던 곳이었다는 점이다. 파헤쳐지기 전까지 모두 45기의 묘가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광해군 시절인 지난 1621년에 처음 묘비가 세워진 정2품 자헌대부 김충영의 묘다. 그는 왕과 왕비의 명령을 출납하는 승전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석이나 상석에 관직이 기록된 것만도 14기가 있었으며 내시부의 최고 관직인 종2품 상선의 묘가 5기, 종1품 승록대부의 묘도 2기나 됐다.

그러나 후손들이 한 조경업자에게 4억8000만원을 받고 땅을 넘기면서 그렇게 갈아엎고 만 것이다.

당시 사건은 한 집안의 집단묘지가 없어진 것 이상의 안타까움을 몰고 왔다. 그곳에 안장된 이들 가운데 김성휘나 박민채, 오준겸 등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에 활동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도 있던 데다 내시들의 부인도 사대부의 부인이 받는 정경부인에 봉작됐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비문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시들의 인물사 연구는 물론 당대의 풍수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였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파헤쳐지면서 모두 흘러간 옛일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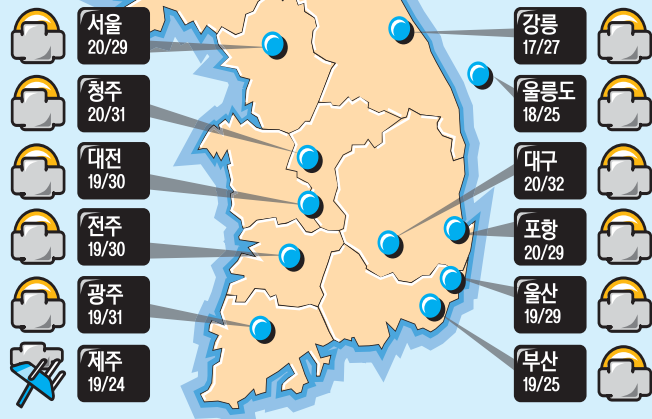
현재 남아 있는 내시의 묘는 은평구 이말산에 있는 4기를 비롯해 도봉구 초안산과 쌍문동, 강남구 신사동, 경기도 고양과 남양주, 양주, 용인, 그리고 경북 청도에 남아있는 것 등 극히 소수다. 사대부의 경우와 달리 내시의 묘와 관련해서는 후손들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쉬쉬하거나 없애버리는 통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시라는 존재가 단순히 거세를 해 남성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왕조 경영에 필수불가결한 전문가 집단이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후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벽을 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남아 있는 몇 기의 내시 묘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 걱정되는 이유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6/27 金 일출시각 05:13 일몰시각 19:5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두꺼운 메이크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크업 노폐물이 피부에 남아 있으면 뾰루지와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친 이직후 결혼할 계획 잘될까요
사직은 신중히, 믿음으로 버티세요

Q 르유 여자 84년 7월 29일 양력 14시 40분
남자 78년 8월 10일 음력 오전 8시쯤

실직위기의 여자84년 양력 07월29일생이고 남자 78년 음력 08월10일생 입니다.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남자친구는 사직서를 내고 이직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이직하면 결혼 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이직이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연락이 거의 없는 듯해서 걱정입니다.. 남자 친구의 직업 운과 결혼궁합이 궁금합니다.

A 좋은 궁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주팔자에서 생, 합(生, 合)을 이뤄야 재물도 원만하게 발전되며 존중하게 됩니다. 천을귀인(귀인의 도움을 받는 길함)이 상존(相存)하고 있다면 이야 금상첨화이겠지요. 서로의 조화됨을 알기위해 궁합을 보기도 합니다만 생월지(生月支)에서 충형살(沖刑殺:충돌하고 때려 맞으며 형벌을 받듯이 흉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두 분은 충돌됨은 없으나 1978년 말띠(戊午)생 1984년 쥐띠(甲子)생 두 분 태어난 해(年)에서 말띠와 쥐띠로 자오충충돌이 있기에 결혼까지는 다소 난관이 따른다고 봅니다.

더욱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여자의 사주팔자 대운(大運; 세월의 흐름)에서 남자가 승승해야 하는데 귀하사주에서 원진살이라는 기운과 합을 하게 되는군요. 말 그대로 원망하는 기운이 작용되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2014년 2015년 파살(破殺:파괴됨)이 작용합니다. 이렇듯 살이 작용할 때는 이직이 크게 용이하지도 않으며 별 도움이 없게 될 것이니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재운이 승발하길 바란다면 꾸준히 한 우물을 파야 할 것입니다.

남자 분은 선량한 음기의 정화(丁火)로 기운이 약하고 자비심이 있으나 주관이 부족 할 것으로 귀가 얇다고 봅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인정받도록 하십시오. 말띠 생이 2014년 말띠해를 만나면 양화위염(兩火爲炎)이 되어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로 인해 신경과민이나 위장질환을 일으켜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니 짜증내지마시고 유산소운동을 많이 하여 두통이 없도록 하십시오. 화기(火氣)를 잘 참는다면 태어난 날에서의 궁합은 번창하는 기운이 있어 서로에 대한 믿음 또한 애지중지 위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켜가며 사이를 이어가시고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3
7						2	6	1
3	4	5	1					
				8			9	4
9				3				7
4	1			5				
					3	7	8	2
8	3	2						6
6		7						

9		6	5				1	
	5				1	6	3	
2								
	9			2				1
4	3						9	2
8				4			5	
								7
	7	4	8				2	
	2				3	1		5

스도쿠 정답

2	6	1	8	9	7	5	4	3
7	8	9	3	4	5	2	6	1
3	4	5	1	2	6	8	7	9
5	7	3	6	8	2	1	9	4
9	2	8	4	3	1	6	5	7
4	1	6	7	5	9	3	2	8
1	5	4	9	6	3	7	8	2
8	3	2	5	7	4	9	1	6
6	9	7	2	1	8	4	3	5

9	4	6	5	3	7	2	1	8
7	5	8	2	9	1	6	3	4
2	1	3	6	8	4	5	7	9
5	9	7	3	2	8	4	6	1
4	3	1	7	5	6	8	9	2
8	6	2	1	4	9	7	5	3
1	8	5	9	6	2	3	4	7
3	7	4	8	1	5	9	2	6
6	2	9	4	7	3	1	8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신점[神占] 운세

6월 27일 (음 6월 1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재물 운이 있으니 기대하라. **60년생** 걱정했던 일은 무사히 잘 넘긴다. **72년생** 순풍이 불 때 배 띄워라~. **84년생** 운기가 좋아도 기본은 지켜야 한다.

49년생 서두르면 말썽이 생긴다. **61년생** 움직이면 길하니 밖으로 나가라. **73년생** 입맛이 당기는 일감을 발견한다. **85년생** 사방에 도우미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50년생 허전한데 벗이 찾아오는구나. **62년생** 숨은 능력 발휘할 기회를 잡는다. **74년생** 잔머리 굴려 낭패 보지 않도록 조심~. **86년생** 전진을 위해선 후퇴필요하다.

51년생 자녀가 기대에 부응한다. **63년생** 생각은 깊이하고 행동은 천천히 할 것. **75년생** 구름 속 청룡이 여의주를 품은 격이다. **87년생** 잘 풀릴 때 암초 조심할 것.

52년생 부부라도 생각은 다른 법~. **64년생** 가정이 화목해 주말 나들이가 기다려진다. **76년생** 갑자기 친절한 사람 경계하라. **88년생** 좋은 일에 물망에 오른다.

53년생 눈이 녹고 봄이 온 격이다. **65년생** 변수가 있어도 계획대로 하라. **77년생** 야심차게 제안한 일은 어렵게 통과된다. **89년생** 야단맞을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

42년생 높은 곳 출입은 삼가라. **54년생** 쓴맛을 본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66년생** 준비 없이 나서면 허탕 감수할 것. **78년생** 상사와 신경전 벌여서 좋을 게 없다.

43년생 근심은 사라지고 웃음이 찾아온다. **55년생**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어 뿌듯~. **67년생** 너무 신중하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79년생** 남의 시선도 적당히 의식할 것.

44년생 주변의 어려운 사람 잘 보듬어라. **56년생** 한 가지에 집중해야 승산 있다. **68년생** 남을 도울 땐 취지에 맞게 하라. **80년생** 실리보단 의리 지키는 게 좋다.

45년생 약속 번복하면 신뢰만 잃는다. **57년생** 성적표가 초라해도 낙심 말라. **69년생** 좋은 성과로 주목을 받는다. **81년생** 포기할 땐 대안도 반드시 생각할 것.

46년생 배우자 불만 신경 쓰지 말라. **58년생** 명예가 길해 감투를 쓴다. **70년생** 이익이 적어도 내일을 생각할 것. **82년생** 솔로는 가슴 흔드는 이성과 마주한다.

47년생 기다리던 재물 들어온다. **59년생** 가정은 화목하고 신관도 편안~. **71년생** 베풀면 도우미는 따르기 마련이다. **83년생** 작은 시련에 실망 말고 끝까지 가라.

프랑스 미스터리… 전력 실체는

막강화력 우승후보 무기력한 경기 실망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프랑스가 급격히 하락한 경기력으로 축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프랑스는 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E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에콰도르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며 '아트 사커'의 부활을 알렸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전혀 다른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승 전력에 의문을 샀다.

후반 5분 상대 선수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 우세도 살리지 못했다.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에 나갈 수 있었던 탓에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후반전에 2명의 공격수를 교체 투입하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상대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문전 앞에서 결정력이 떨어진 공은 번번이 골문을 벗어났고, 잘 맞은 슈팅은 에콰도르 골키퍼 알렉산데르 도밍게스에 막혔다. 프랑스는 수비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엔네르 발렌시아 원톱 공격에 의존하던 에콰도르의 공격에 쉽게 기회를 내줬고, 후반 9분과 36분, 37분에 실점 위기도 맞았다.

더욱이 수비수 마마두 사코가 스위스전에 이어 이날 또 부상을 해 심각한 전력 손실까지 입었다. 사코는 볼을 다투다 다리를 다쳐 경기 시작 16분 만에 교체됐다.

프랑스는 조별리그 첫 두 경기까지만 32개국 중 최강이었다. 온두라스에 3-0, 스위스에 5-2로 승리를 거뒀다. 최근 50년 동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첫 두 경기를 모두 3점 차 이상으로 이긴 팀은 올해 프랑스까지 총 3개 팀이다. 이 중 1998년 프랑스를 비롯해 앞선 2개 팀은 모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상대팀 스위스 감독마저 "프랑스는 우승 후보"라는 찬사를 보냈다. 데샹 감독은 "1998년 정상에 오르던 당시의 정신력이 느껴진다"고 우승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날 경기 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랑스가 우승을 위해 잠시 쉰 것인지, 아니면 초반 깜짝 퍼포먼스를 끝내고 실제 전력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프랑스는 다음달 1일 오전 1시 F조 2위 나이지리아와 8강행을 다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에콰도르의 후안 파레데스가 프랑스의 무사 시소코의 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공을 뺏으려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축구에 열광?

인도네시아가 2014 브라질월드컵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6일 인터넷판에 '월드컵에 관한 5가지 이상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월드컵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월드컵에 가장 열광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나라' 항목에서 인도네시아가 61.3%로 1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1938년 프랑스월드컵 이후 한 번도 본선 무대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러나 축구 인기가 높아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스포츠스코프'가 벌인 설문에서 전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월드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멕시코가 57.9%로 2위였고 인도(53.1%), 아랍에미리트(50.3%)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45.1%로 5위에 올랐다.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는 11%의 미국이었다. 미국은 미식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아이스하키의 인기가 더 높다.

/양성운기자 ysw@

메시 이름값 톡톡… 득점 선두

아르헨티나 전승 주역 '16강 진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골잡이 본능을 발산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아르헨티나는 26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나이지리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혼자 2골을 몰아넣은 메시의 활약으로 나이지리아를 3-2로 이겼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3전 전승,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세 경기에서 모두 골 맛을 본 메시는 4골로 바르셀로나에서 함께 뛰는 브라질의 네이마르와 함께 득점 부문 공동 선두가 됐다.

메시는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지 3분 만에 앙헬 디마리아(레알 마드리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자 문전으로 쇄도하며 왼발로 재차 차넣어 선제골을 터뜨렸다. 메시는 나이지리아가 1분 뒤 아메드 무사(CSKA모스크바)의 동점골로 기쁨을 앗아가자 전반 추가시간에 그림 같은 프리킥 골로 다시 리드를 안겼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경기서 두골을 몰아넣은 메시 /AP연합뉴스

나이지리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2분 만에 무사의 득점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나 후반 5분 코너킥 기회 때 공이 마르코스 로호(스포르팅 리스본)의 무릎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행운을 잡아 결국 승리를 가져갔다.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에 패배했지만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다. 월드컵 16강 진출은 16년 만이다.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는 스위스, 나이지리아는 프랑스와 격돌한다. /양성운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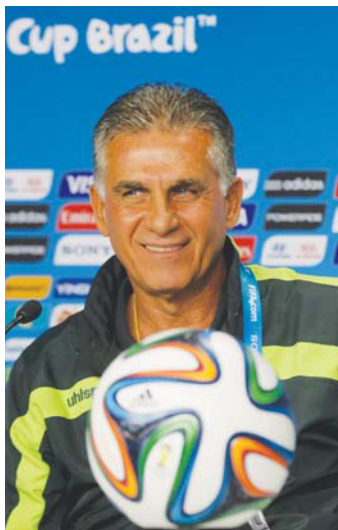
탈락 후폭풍 줄줄이 옷벗는 감독

이탈리아·온두라스·일본·이란·코트디부아르 등 확정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탈락의 수모를 겪은 감독들이 하나둘씩 사령탑에서 물러나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G조와 H조를 제외한 나머지 6개조가 조별리그 일정을 마쳐 12개국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16강 진출팀이 속속 결정되면서 축구 열기는 한층 달아오른 반면 탈락한 국가들은 침통한 분위기다. 16강 탈락이 확정된 감독들은 줄줄이 사퇴한다.

가장 먼저 사퇴의사를 밝힌 감독은 이탈리아의 체사레 프란델리다. '죽음의 D조'에 편성된 이탈리아는 우루과이, 잉글랜드, 코스타리카와 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며 희생양이 됐다.

프란델리 감독은 지난 25일 우루과이전에서 패해 탈락이 확정되자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전술적인 부분이 준비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온두라스 축구 대표팀의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감독도 16강 탈락 직후 지휘봉을 내려놨다. 온두라스는 26일 대회 조별리그 E조 3차전에서 스위스에 0-3으로 완패했다. 프랑스에 0-3, 에콰도르에 1-2로 패해 벼랑 끝에 몰렸던 온두라스는 이날 승리하면 프랑스와 에콰도르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작게나마 있었다.

하지만 제르단 샤치리(바이에른 뮌헨)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결국 3패로 씁쓸하게 대회를 마감했다.

이번 대회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사령탑들도 잇달아 사퇴를 결정했다. 이란의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과 C조 일본의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이 각각 월드컵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케이로스가 이끈 이란은 이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1-3으로 패했다. 이로써 이란은 1무2패로 F조 최하위에 머물렀다. 케이로스는 경기가 끝난 후 "이란 축구협회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이란을 위해 일해 영광이었다"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콜롬비아와의 C조 최종전에서 대패하며 탈락이 확정된 일본의 자케로니 감독도 이날 사퇴를 결정했다. 자케로니 감독은 일본 베이스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일본과 같은 C조에서 탈락한 코트디부아르의 사브리 라무쉬 감독도 전날 사임을 결정하는 등 이번 월드컵을 통해 지휘봉을 내려놓은 감독은 벌써 5명이나 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카를로스 케이로스 이란 감독

알베르토 자케로니 일본 감독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온두라스 감독

24일 오전5시 열린 A조 최종전 브라질과 카메룬의 경기에서 카메룬의 조엘 마티프와 부딪혀 쓰러진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브라질 할리우드 액션 1위

월드컵 이모저모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할리우드액션'을 연출한 팀은 개최국 브라질로 나타났다.

그라운드에 드러누워 가장 많이 시간을 허비한 팀은 온두라스였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 대회 조별리그 1~2차전 32경기를 분석한 결과 다친 것처럼 고통을 호소하는 연기를 한 횟수는 브라질이 17차례로 가장 많았다. 질레가 16차례로 2위에 올랐다. 반면 온두라스 는 15차례 쓰러져 무려 7분40초를 허비했다. 시간 낭비 2위는 7분19초의 프랑스였다.

◆ 나이지리아 16강 진출 후 찾아온 불운

나이지리아가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불운도 맞았다.

나이지리아의 미드필더 마이클 바바투데(볼린 루츠크)가 26일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F조 3차전 도중 동료 오게니 오나지(라치오)가 슈팅한 공에 맞아 손목 골절 부상을 했다. 오나지는 후반 18분쯤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강력한 오른발 슛을 시도했고 이 공이 바바투데의 손목을 강타했다. 바바투데는 황급히 들어온 의료진에 의해 부목을 대는 등 응급처치를 받고 고통스럽게 실려나갔다.

◆브라질 축구팬 총격전까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축구팬 간의 자존심 싸움이 총격전으로 번졌다.

26일 새벽 브라질 남부 포르투알레그리 시다지 바이샤 지역에서 브라질인과 아르헨티나인이 축구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 총격전이 일어났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인이 총격을 가해 아르헨티나인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며 다행히 중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총격을 가한 브라질인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총격 사건은 포르투알레그리 시 베이라히우 경기장에서 열리는 F조 조별리그 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 경기를 앞두고 일어났다. /양성운기자

류현진 다저스 올 첫 10승 도전

28일 세인트루이스전… 지난해보다 36일 빨라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두 자리 승수 쌓기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2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한다. 올 시즌 15번째 등판하는 류현진은 이날 시즌 10승째를 노린다. 지난해 21번째 등판이던 8월 3일 10승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빠른 흐름이다.

특히 2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잭 그레인키가 4패째를 당하면서 류현진이 이날 승리한다면 올 시즌 다저스에서 가장 먼저 10승을 달성하는 투수가 된다. 내셔널리그에서 25일까지 10승을 달성한 투수는 알프레도 시몬스(신시내티 레즈)와 애덤 웨인라이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둘뿐이다.

이번 경기는 다저스의 실질적인 에이스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다.

세인트루이스와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해 7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따냈다. 특히 10월 15일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3차전에서 맞붙었을 때는 7이닝 3피안타 무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미국 진출 후 첫 포스트시즌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이날 상대 선발은 지난해 첫 경기에서 대결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다. 올해 주로 중간 계투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날 시즌 세 번째 선발 등판한다. 세인트루이스의 팀 타율은 0.252로 내셔널리그 15개 팀 중 7위다. 타율 0.328·9홈런을 기록한 맷 애덤스와 11개의 홈런을 기록 중인 조니 페랄타가 경계 대상이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26일

■ 잠실

팀	1-3	4-6	7-9	계
N C	000	000	000	0
L G	000	021	01X	4

△승= 리오단(4승 6패) △패= 이성민(1승 1패)

■ 대전

팀	1-3	4-6	7-9	계
롯데	012	114	010	10
한화	021	500	001	9

△승= 김사율(1승 3패) △세= 김승회(1패 11세이브) △패 = 김기현(1패) △홈런 = 최준석 12호(3회2점·롯데) 최진행 4호(9회1점·한화)

■ 대구

팀	1-3	4-6	7-9	계
넥센	345	210	000	15
삼성	103	221	000	9

△승= 김영민(4승 1패) △세= 김대우(1세이브) △패= 마틴(4승 4패) △홈런 = 윤석민 6·7호(2회1점, 4회2점) 허도환 1호(2회1점) 강정호 22호(3회2점) 박병호 28호(5회1점·이상 넥센) 나바로 15·16호(1회1점, 3회1점·삼성)

■ 광주

팀	1-3	4-6	7-9	계
S K	000	110	002	4
KIA	210	041	00X	8

△승= 최영필(3승) △패= 김광현(7승 6패) △홈런 = 이범호 9호(1회2점·KIA)